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더욱 '나'와, '주변' 그리고
'우리'라는 걸을 돌아보고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내 삶의 도서관,
'코로나 일상'을 통해 읽다

김주영 · 조다희 · 최찬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저자

—

김주영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공부했다.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여행을 즐긴다.
현재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조다희

비교문학 그리고 지금은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좋은 사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최찬란

문학과 문헌정보학을 공부했다.
책의 물성을 사랑한다.
현재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내 삶의 도서관, ‘코로나 일상’을 통해 읽다

프롤로그(prologue)

‘도서관은 왜 끊임없이 그 가치와 의미를 증명해 내야 하는가?’

위의 물음처럼 이 논고는 다른 방식으로써 **도서관의 ‘가치와 의미를 증명’하는 데 작은 목표가 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을 차치하고 새로운 역할을 끊임없이 부여받아 온 도서관은 그 정체성을 탐구하고 변주하며 확장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도서관은 잠정적인 임시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을 포함해 도서관 안팎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난관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마냥 좇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자취들을 다시 밟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해온 ‘다이내믹’한 일들이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과 마을의 이야기들은 ‘도서관’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어떻게 나뉘지고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주민들에게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나서는 곳 이외의 어떤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제시한 비전처럼 과연 도서관은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이 모든 상황이 한창 위축되었을 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자취를 보이기 시작했다. 난점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간 놓쳤거나 때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제 역량과 동력을 발

휘해서 점차 희망과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삶의 질’ 제고를 향한 다방면의 정량적 평가 선상에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도서관 도처에서 촘촘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이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특히 도서관 현장과 주변에서 체감한 삶의 변화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변화의 힘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변화는 오히려 어떤 탄력을 받고 또 다르게 달라질까. 아니면 소용돌이 같은 변화에도 변치 않고 우리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이 기로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변화무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는 분명 **‘다시 생각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조건 없이 빠르게 달려온 형국에서 한 템포 쉴 수 있는 지금 ‘위기는 기회’라는 표현조차 새삼 새롭다. **이제 더욱 ‘나’와, ‘주변’ 그리고 ‘우리’라는 걸을 돌아보고 이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다.**

먼저 1부에서는 도서관과 삶의 질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김상균(1996)의 정의에 의하면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또한 개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으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 친밀감, 자율 같은 심리적 요소 역시 포함된다. 김상균 이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피고 그 추이를 탐색해본다.

2부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최초 기획 이후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질문들이 보다 응용되었으며 그 대답을 모아 재구성했다. 현재의 삶 속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뜻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다.

또한 3부에서는 두 차례의 온라인대담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도서관과 삶의 변화에 대해 묻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인접한 도서관의 책임자, 중간관리자, 사서 등이 대담에 참여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경험, 노하우, 극복 및 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해봤다.

마지막 4부에서는 성북구 도서관마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북구립도서관의 마을in수다 사례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을 주축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현장을 재확인해본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함께 제언해 본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차____레

10	1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피며, ‘도서관의 몫’을 생각하다.
24	2부 나, 우리, 주변을 향해 도서관이 ‘다시’ 묻습니다. — 코로나19 전망, 영상으로 함께 보다
92	3부 온라인 대담으로 묻고 나누다 도서관 대담 ① 대응을 넘어 전환의 시대로 도서관 대담 ② 다시, ‘성장하는 유기체’를 생각하다 — 책과 연구를 통해 ‘리터러시literacy’를 읽다
118	4부 도서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의 ‘마을in수다’를 통해 본 가능성
164	제언 삶의 변화가 던져진 지금, 우리는 도서관으로 향해 간다 참고자료 170 찾아보기 174 함께 해 주신 분들 176

1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피며**

**‘도서관의 몫’을
생각하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살피며
‘도서관의 몫’을 생각하다

2000년대 초 ‘삶의 질’
개념과 지표에 대한 연구 시작

사회발전지표 개념으로써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경제학, 심리학, 행정학, 철학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생활 및 주거 여건, 건강, 복지 등의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성대(2014)♦는 삶의 질이 경제적 생산이나 물질적 생활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더 넓고도 깊은 개념이며 우리가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로 중심 이동해야 한다는 <스티글리츠 위원회(Stiglitz Commission (2009))>♦♦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의미와 용어의 오남용, 다각적이고 상이한 접근과 견해, 측정 방식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접근법을 고려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함께 객관적인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는 한편 개인적 삶과 사회적 관계 및 환경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명철(2013)♦♦♦은 공공서비스 등 공공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인의 경험을 강조한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에 근거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경험과 만족도가 곧 정부 정책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 활동의 효과성까지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공가치의 효용성에 관한 논증을 이어오는 등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시민들의 삶의 질 인식

♦ 우성대. 2014. 행복의 정치 경제학을 위한 연구 : 웰빙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3. 299-304쪽.
♦♦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이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2008년 GDP 추계방식을 문제 삼은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위원장인 스티글리츠를 포함해 20인의 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성장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하여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지표 개발 및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스티글리츠 보고서Stiglitz Report>(2009.09)가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 GDP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을 강조한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 TD)과 외재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강조한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BU)으로 삶의 질을 설명해왔다(Sirgy, 2001). 하향확산이론은 우울감, 활동성, 낙관성과 같은 개인의 기질을 나타내며, 상향확산이론은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과 효용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출처: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7-10쪽)

간의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추이는 2014년 ‘왜 정부는 행복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구체화된다. 이현국 등(2014)♦의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개별 공공서비스에 대한 성과 인식과 행복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론화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김병섭 등(2015)♦♦의 연구에서는 ‘상향확산이론’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가 개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고양된 삶의 질이 다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 삶의 질을 매개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으로 규명되기도 했다. 즉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며 측정 시 복합적으로 고려된 요인으로 행복, 자유, 실용, 정체성 등 개인적·사회적 관점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교육, 건강, 가족관계, 교통, 환경, 정치참여, 경제적 상황, 범죄 등이다. 하지만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영향연구는 필요하다. 이 연구의 말미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공공서비스와 국민행복 간의 인과경로에 대한 진단 및 점검 평가’는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2017년 공공도서관 서비스 삶의 질 연관성의 시작점

노영희 등(2017)♦♦♦에 의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는 삶의 질 측정 지표를 통한 실질적인 검증사례나 연구가 희박하다는 문제 제기로 부터 출발한다. 즉 공공도서관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삶의 질이라는 용어 개념 자체가 지닌 추상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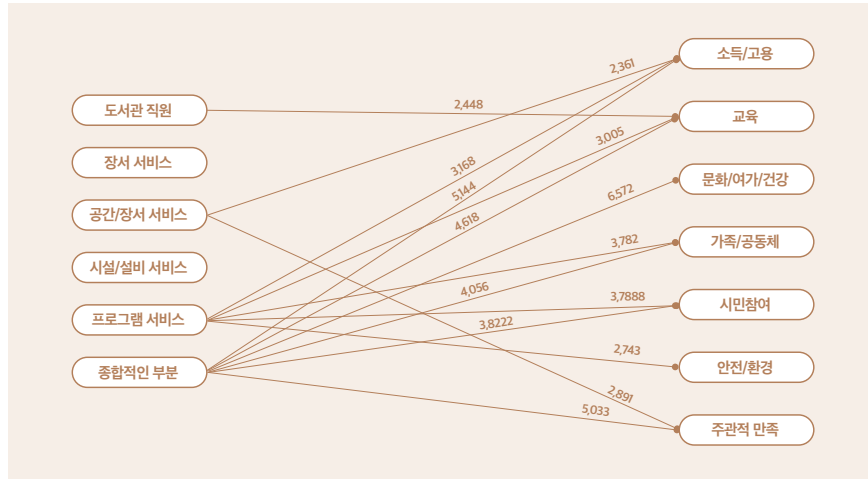
♦ 이현국, 이민아. 2014. 공공 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 행정학회 48(2).
♦♦ ‘국민행복’에 관한 영향 요인의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 ② 사회의 질(삶의 질, 자유나 평등)에 관한 연구, ③ 정부 관련(정부의 정책 및 성과) 요인
출처: 김병섭, 최성주, 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연구. 『한국행정학회』 49(4) 99쪽.
♦♦♦ 노영희, 박양하. 2017.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노영희. 2019. 도서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서 이 연구는 2014년 통계청이 제시한 「국민 삶의 질 지표: 12개 영역 81종 지표」를 토대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각각의 삶의 질 지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지’의 관점으로 12개의 범주별 문항이 재구성된다. 문화/여가, 주관적 웰빙, 교육, 사회복지, 주거 및 환경 등의 다양한 범주의 영향정도는 결론적으로 도서관의 기여 여부가 관건이다. 가령 도서관은 개인이 느끼는 삶에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도서관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는데, 도서관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서관은 주요 사회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검증 결과 상향확산이론에 기반을 둔 공공도서관 서비스 경험의 인식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5개의 지표(평균 3.0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지표를 근거로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기획, 홍보, 맞춤형 서비스가 활용 가능해지는 등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제고될 것이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한 평가 지표 개발을 과제로 남겨둔 이 연구는 삶의 질 평가 지표가 “공공도서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에도 노영희♦는 그 논의를 이어간다. 역시 『국민 삶의 질 2017』(서울: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측정지표는 도서관서비스의 품질 평가(도서관 직원 평가, 장서서비스, 공간/장소 서비스, 시설 및 설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종합평가 서비스 평가)와 삶의 질(소득/고용, 교육, 문화·여가/건강, 가족·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환경, 주관적 만족)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도서관 서비스 요소들이 삶의 질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 수행,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설을 증명해 나간다.



도서관 서비스와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도(출처 : 노영희, 2019. 121쪽)

가설검증 결과 위의 표와 같은 도서관 서비스와 삶의 질 간의 영향력 관계가 수립되었다. 그 중 프로그램 서비스는 5개의 세부가설, 종합적인 부분의 만족도는 ‘소득/고용, 교육, 문화·여가/건강,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주관적 만족’의 6개 세부가설이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서관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도출함으로써 그간 공공도서관이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정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논의 및 제언부의 가장 첫 질문인 ‘도서관은 왜 끊임없이 그 가치와 의미를 증명해 내야 하는가?’는 경기총서 연구의 가장 큰 화두이자 출발점이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아이디어로 차용했던 이 물음은 국민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그 관계를 증명해 낸 연구가 부재하다는 유의미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으로의 현 정책과 제언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세대 및 기술 양극화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을 지원하고, 시 정책을 일상으로 확산시키는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혁신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단계에 발맞춰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 모델(가이드) 개발’(2019),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민서비스 성과조사’(2020),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혁신 정책 수립’(2021)이 그것이며, 현재(2020.07)는 기구축한 모델을 토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시민서비스 성과조사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 구성과 환경 분석의 기준 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3차 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네 가지 정책과제를 최종 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가치를 항목별로 분류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과 상응하는 가치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기여도가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이 삶의 질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고 또 기여하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지만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도서관의 개별적인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나 성과 측정의 도구로만 쓰여선 안 될 것이다. 도서관을 향한 가치 입증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관적인 지표가 객관적인 측정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포섭하지 못하는 삶의 측면을 담는 보완적인 장치’♦임을 이해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을 토대로 삶의 면면을 읽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다. 삶에 관한 만족도나 삶의 질 평가는 상중하 식의 단순 구분된 기준으로

♦ 『국민 삶의 질 2019』 118쪽, 통계청 통계개발원(2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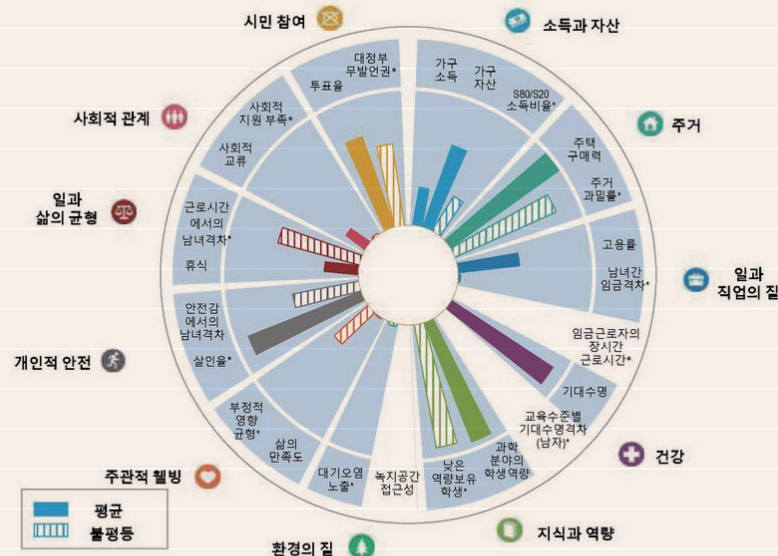
측정할 수 없다. 즉 지표 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적인 상황,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주관적 판단과 가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도서관이 삶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도 삶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나와 주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보고자 한다. 기획 이후 급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도서관이 그간 걸어온 자취를 탐구하고, 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한 소통과 대담을 통해, ‘코로나 일상’으로 내딛는 걸음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해온 사례를 재발굴하고, 그 가치를 변주하고 확장해나간다면 삶의 변화를 향한 도서관의 ‘몫’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삶의 가치를 만드는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	1. 국제기구의 사회발전 지표
	①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산하 자문기구)의 <u>세계행복지수 WP(world happiness index)</u> SDSN은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을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해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872점을 받아 전체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했으며, 작년 보고서보다 7계단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순위는 2015년 47위, 2016년 58위, 2017년 56위, 2018년 57위 2019년 54위로 50위권에 머물렀다. 핀란드는 3년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올랐다.
	② 미국 비영리단체 사회발전조사기구의 <u>사회진보지표(SPI: Social Progress Index)</u> 사회적 진보 지수는 사회적 및 환경적인 지표에 중점을 두는 평가 지수로 UN이 설정한 17가지 개발 목표를 지표로 삼는다. 투입 가치(인풋)가 아닌 산출물(아웃풋)에 기반해 지표를 산정하며, 개인과 커뮤니티의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지,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종합점수 85.61로 참가한 149개국 중 23위를 기록했으며, 작년보다 5계단 하락했다. 상위권은 대부분은 북유럽 국가로 노르웨이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③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u>더 나은 삶 지수 BLI(Better Life Index)</u> OECD가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 지표는 주거, 소득, 일자리, 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주관적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이며, 총 40개국 중 2017년 28위, 2018년 30위였다. 2020년 OECD가 발간한 보고서 “How’s Life in 2020?(2020년의 삶은 어떨까?)” 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 점수는 총 33개국 중 32위(한국은 10점 만점에 6.1점)로 불평등과 관계의 단절은 더욱 악화된 걸로 나타났다.



한국의 삶의 질

한국의 현재 웰빙, 2018 년 또는 최근 연도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내며, 역으로 점수가 매겨진(reverse-scored) 부정적 지표는 *로 표시된다. 불평등(성우 및 하위권의 격차, 그룹간의 차이, 결핍선 이하의 사람들)은 빛살무늬로, 누락데이터는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한국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2018 년 또는 최근 연도

자연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생성된 고정자산	청년의 교육성취도	타인에 대한 신뢰도
↔	↘	↔	...
↔	↕	↗	↗
물질발자국	정부의 금융순자산	조기사망률	정부에 대한 신뢰도
↔	↕	↘	↗
↘	↘	...	정치에서의 남녀평등
멸종위기동물의 적색목록	가계부채	노동 저활용률	...
↘	↘	...	...

주: ①=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②=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③=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을 나타낸다.
 ✓는 지속적인 개선, ↔는 특정하고 지속적인 주제가 없음, ✕는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는 2010년 이후 주제를 결정할 충분한 시계열이 없음을 나타낸다. 상세한 방법은 *How's Life? 2020* 독자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OW'S LIFE? 2020 © OECD 2020

2. 국내 사회발전 지표

① 통계청 사회지표

우리나라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의 평균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목표 아래 2019년 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 현황의 큰 흐름은 2011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지표체계에 대한 개편을 이뤄왔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중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 정서경험, 삶의 의미와 보람 등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2019년 결과 '삶의 만족도'는 60.7%(남자 59.5%, 여자 62%)로 전년보다 3.0%p 감소하였다.

②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2017·2019)

성북구는 성북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및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 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과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51.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한다

보통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	9	8	7	6	5	4	3	2	1	0
----	---	---	---	---	---	---	---	---	---	---

52.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치 있다

보통

전혀 가치 없다

10	9	8	7	6	5	4	3	2	1	0
----	---	---	---	---	---	---	---	---	---	---

5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행복 했다

보통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10	9	8	7	6	5	4	3	2	1	0
----	---	---	---	---	---	---	---	---	---	---

54.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걱정이 없었다

보통

매우 걱정이 많았다

10	9	8	7	6	5	4	3	2	1	0
----	---	---	---	---	---	---	---	---	---	---

55.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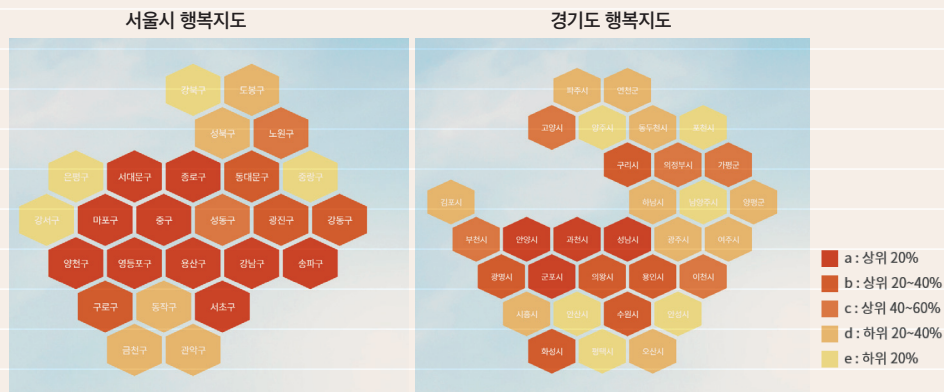
10	9	8	7	6	5	4	3	2	1	0
----	---	---	---	---	---	---	---	---	---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에 대한 설문지(가구주) 문항

첫 시행 후 여섯 번째 발간된 ‘2019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는 보건 및 복지, 가족, 교육, 경제, 교통 및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참여, 공공행정 등 총 10개 분야에 걸친 주민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 주관적인 의식 중 주목하고자 하는 부문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으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감, 근심/걱정, 우울감)으로 분류하여 그 척도를 측정한다. 행복감은 2017년(6.7점) 대비해 2019년(7.0점) 근소하게 상승(+0.3)하였고, 근심/걱정(4.0점→3.3점)이나 우울감(3.4점→3.2점) 부문은 감소했다.

③ 대한민국 행복지도(<http://www.happykorea.re.kr/>)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정책의 장에서 행복이라는 주제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행복을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행복의 측정을 위한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제시한 10개 영역을 8개 영역으로 간추려 재구성한 영역은 ①건강 ②안전 ③환경 ④경제 ⑤교육 ⑥관계 및 사회참여 ⑦여가이다. 또한 심리학에서 행복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행복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지수 내에 포함시키고자 ⑧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2019년 말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 연구』(국회미래연구원)의 서울과 경기권 행복지도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 보고에서는 행복의 상하위 영역의 분포와 그 격차의 함의가 경제적 번영이 반드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행복이 정책 담론 안으로 들어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행복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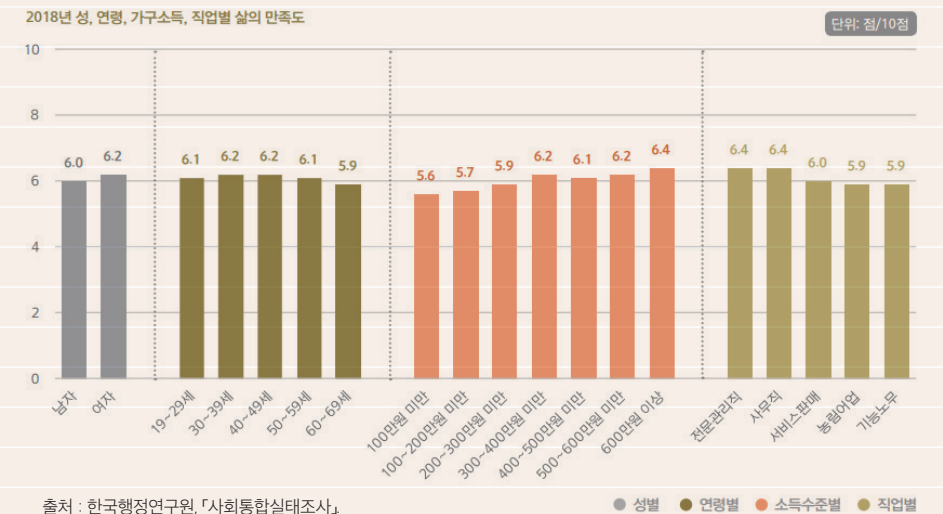


출처 : <http://www.happykorea.re.kr>

④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최근 발표된 ‘국민 삶의 질 2019’는 2017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 보고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측정결과를 체계적인 영역 및 개별 지표별로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 건강, 교육, 주거, 고용과 사회적 관계 영역인 시민참여, 여가, 가족·공동체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안전 영역을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인 지표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세 가지로 나뉜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긍정정서는 ‘어제 얼마나 자주 행복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측정되며 부정정서는 ‘어제 얼마나 자주 걱정하고 우울감을 느꼈는지’로 측정된다.



2

나,
우리,
주변을 향해

도서관이
‘다시’ 묻습니다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 시대, 국내외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후로 이전과는 다른 일상과 환경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익숙했던 의미와 개념들은 새롭게 탄력 받고 있거나 확연히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한다. 그 변화의 모습은 다양하며 ‘나와 주변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세계의 속도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2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받고 변화·확장하는 ‘일상, 삶, 지역사회, 공동체, 연대, 변화, 대안, 환경, 가치, 균형, 공존, 공생, 협력’과 같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자, 지역 예술가, 도서관관계자, 지식인들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일상, 삶, 지역사회, 공동체, 연대, 변화, 대안, 환경, 가치, 균형, 공존, 공생, 협력, 그리고 다시, 생각하다

※ 본 인터뷰는 4개월간 13개의 질문을 도서관관계자, 도서관(비)이용자, 타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에게 서면으로 받았고 이를 재정리하였다.

나, 우리, 주변을 향해 도서관이 ‘다시’ 묻습니다.

Q1.

‘나의 삶’을 기점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전체 질문의 핵심입니다.

비대면(언택트Un-tact)시대를 맞아 ‘달라진 삶’의 모습은

유통이나 외식 등 온라인채널 재편, 재택근무 강화♦ 등으로 인한

‘집’, ‘가정’을 둘러싼 변화일 것입니다.

‘모여 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이 시대에

가족관계를 주축으로 변화하는 것들에 무엇이 있었는지요?

(실제 경험 등 어떠한 의견도 좋습니다.)

♦ “Twitter says
employees can work from
home forever”

세계적인 주요 IT기업 가운데 트위터(CEO 잭 도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영구 재택근무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실리콘밸리에서 선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내는 방식을 찾을 것이고, 관리자들도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팀을 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일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다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뉴노멀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인터뷰이(interviewee)는 ‘INT’ 약자로 표기함.

#INT1◆◆

‘가족에 대한 삶의 철학 변화’ 느껴

30대 직장인으로 지금까지는 가정보다 회사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한창 커리어를 쌓아야 할 때라 퇴근 후에도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가져왔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외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당장의 일 때문에 그간 유예해 왔다면 이제는 새삼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서로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가족과 지

금 이 순간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INT2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가져오는 위기감’도 얘기되어야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재택 근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사마다 그 차이가 있지만, 특히 여성들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된 경우가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요.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문제는 부부간 역할에 대해 새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위기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족 불화로 이어지고요. 재택근무의 환경 역시 집에서 근무하는 상태보다 집에서 머무르는 인식이 보다 강하다보니 그만큼 회사의 관리와 통제가 강해진 면도 있어요. 공적이었던 영역이 사적인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죠. **재택근무가 안정화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겠죠. 안전하고 유연한 재택근무의 체계적인 제도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INT3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늘어난 만큼 균형 있는 생활 필요해

코로나 여파로 고등학교 자녀의 입학이 미뤄지면서 맞춰둔 동복 교복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하복을 꺼내 등교했던 첫날이 떠오릅니다. 급식실에는 투명 칸막이가 생기고 교내 음수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온라인으로 과제, 토론

활동, 수행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는 성적을 받기 위해, 시험을 보러 가는 곳으로만 여겨져 쓸쓸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남편 역시 온라인 개학으로 영상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강의안 뿐 아니라 영상과 편집을 직접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역량을 배우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저는 지역도서관에서 책놀이 활동가로 활동했는데 그림책 작업이 더 하고 싶어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과 소통하느라 집안에서 더욱 바쁘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집이란 공간에서 가족이 다 함께 어우러져 지내다보니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다들 애쓰죠. **서로 협업하여 균형 있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NT4

물리적 거리 느낄수록 ‘불안 심화’

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전에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 비대면-비디오 채팅으로 소통해왔어요. 기존 방식은 큰 변화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분명 있어요. 일단 떨어져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 불안하죠. 가까이 곁에 함께 있으면 챙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팬데믹 사태로 장기화되면서 내가 언제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괴롭습니다.

Reference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 방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및 일본에서 원격근무가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실업률 극복, 고령화, 성별 임금격차, 일가정 양립, 일과 삶의 균형,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공통적인 요소를 갖는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로 촉발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추세에 맞게 업무공간과 방식에 대한 디지털 혁신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사무실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거주지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공간의 다변화와 비대면 상황에 맞는 논의와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

출처: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2020. 6(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02호), 서울디지털재단



로버트 라이시 미국 캘리포니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코로나 시대의 4계급… 당신은 어디에 있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미국 사회에 새로운 4개의 계급이 출현했다고 본다. 그가 이러한 분류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 사이의 격차를 걱정하고, 계급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잊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잊힌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1.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노동자의 35%, 전문·관리·기술 인력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전자문서를 다루는 등 노트북으로 장시간 업무를 하는 자

2.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

노동자의 30%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이들로,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들(의사, 간호사, 노동자, 배달 및 공급자, 운전기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3.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The Unpaid)

코로나19 위기로 무급휴가를 떠났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소매점, 식당, 제조업체 직원 등)

4.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

물리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감옥, 이민자 수용소 및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

출처: “코로나 시대의 4계급… 당신은 어디에 있나” (경향신문, 2020.04.27)

Q2.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논한 글로벌 전문가(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는

“젊은 세대는 코로나 흔적을 평생 안고 간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1981~1996년생)가 주축일 텐데,

그간 이들이 겪은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증폭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비대면 시대를 사는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등에

가장 최적화된 세대이므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부여되는 과제나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 골드만삭스가 바라본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집단’(a larger cohort)으로 인터넷·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The First Digital Natives)’이자 ‘소셜로 연결된(social and connected) 세대이며, 낮은 취업 수준과 적은 수입으로 ‘덜 돈이 적은(less money to spend)’ 세대이다. 관련해 졸업 후 갚아야 할 학생 대출금 등으로 ‘빚 진(encumbered with debt)’ 세대이자, 결혼이나 주택 소유 대신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different priorities)’ 세대라고 분석하였다.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archive/millennials/> (2015)

◆◆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 2011년 이후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이기도 하다. 2011년은 애플의 인공 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인 ‘시리(Siri)’가 출시된 해다. 2025년이 되면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25%인 2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INT1

‘밀레니얼 세대’ 장점 극대화와 철학적인 고민 함께 담겨야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알파세대’◆◆의 부모세대로 등극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만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적응력과 경험이 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거짓 정보가 범람하는 때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용할 줄 아는 힘을 길러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건강한 미래를 위해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사유의 지점들을 내면화하는 방법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연대나 소통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가치는 지속해서 정의되어야 하고 또 탐구되어야 하니까요.**

#INT2

밀레니얼 세대에게 더 없는 기회, '세대 갈등' 경계해야

밀레니얼 세대에게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를 예견이라도 했듯 이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행연습 해왔지요. 지금도 넘치는 기술의 숨찬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왔기에 콘텐츠의 '매개자'로서 최적화된 세대입니다. 화상회의 등 디지털 세계 안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여전히 디지털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을 그들의 광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고민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줄 수 있는 조정자이자 중재자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의 기술 응용 격차가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데, 현재 상황으로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INT3

'밀레니얼 세대', 커먼즈(Commons)의 원동력 될 수 있어

소위 세대화의 분류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일반화한다는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특정한 경험'을 나눴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즉 코호트Cohort(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소비자 세대)적인 관점으로 사회적인 변화와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데요.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점이라 해도 이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단절 심화나 개인주의가 요즘 같은 시대에 괜한 걱정이기도 하지요. **생존을 위한 타인과의 연대나 협력이 필요한 지금, 디지털 세계를 통한 지식과 정보는 사회적 공유재인 커먼즈(Commons)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된다면 어느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유 자산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INT4

자라는 아이들, 힘든 청년들 보며 '어른들의 책무' 더 느껴

우리 자녀들이 밀레니얼 세대인 걸 보면 유형화된 행동 패턴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독서시간은 줄고 동영상 매체를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2010년생 작은 아이의 경우 책을 읽게 북돋우려면 많은 공이 듭니다. 최근 온라인 독서토론에서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저 명령하거나 다그치는 대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학교, 도서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요.** 청년들에게는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하지 않는 게 최선일 정도로 힘든 시기입니다. 세상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특히 어른들이 술선수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최근 출간된 책 제목처럼 지금 사회는 ‘각자도생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슨한 공동체♦’가 호명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연대나 소속감의 약화가 당위성을 얻기도 했고

최근에는 ‘친밀함’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 간의 관계가 중심이라면

이 ‘느슨함’은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 분명 위기 중의 위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두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INT1

공동체의 대안은 ‘또 다른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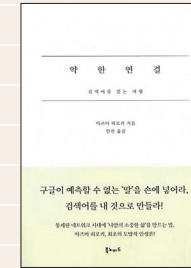
느슨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까지가 ‘느슨함’으로 간주될까요? ‘강한, 약한, 험거운, 느슨한’ 등의 수식을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느슨함’은 개인과 공동체의 특징에 따라 저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수식을 둘러싼 ‘공동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겪었거나, 또 지금 겪고 있는, 또한 앞으로 겪게 될 공동체는 환경과 사회에 따라 저마다의 모습으로 형성되고 또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대안은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 1973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크 그레노베터(Mark Granovetter)가 발표한 ‘**느슨한 연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 ‘강한 연대’에 비해 ‘약한 연대’, 일명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오히려 중요한 정보(취업, 일자리)를 얻고, 공동체 활동, 협력, 본업의 형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고 본다. The Strength of Weak Ties. Mark S. Granovetter.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May,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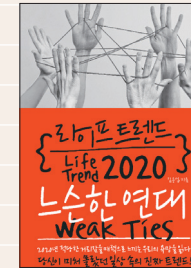
Reference_book



『각자도생 사회』, 전영수, 블랙퍼피, 2020.



『약한 연결』, 아즈마 히로키, 안천 역, 2016.



『라이프 트렌드 2020 : 느슨한 연대 Weak Ties』, 김용섭, 부키, 2019.
“느슨한 연대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선거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소비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느슨한 연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민할 이슈다.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의식주를 넘어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느슨한 연대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즉 메가트렌드로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28-29쪽)

#INT2

지역 공동체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기’

신자유주의 하에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방법만 알도록 배워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져야 하죠. 경쟁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중 시급한 건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곁을 돌아보면 산재한 문제들, 이를테면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문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은 정신 건강 등의 문제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INT3

‘느슨함’이 새롭게 결속하는 힘 될 수 있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 일부 개인(여성)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까지 침범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지닌 순기능이 있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각자도생 사회’라는 말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 같습니다. ‘느슨한 공동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보다 세련된 방식

Reference

“We’re all in this together”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는가?
이 슬로건은 진실이어야 한다.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공공선, 연대, 사회적 결속의 원칙



이미지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우리 모두 함께’ 이 표현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슬로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라는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대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선(common good)’이 지향하는 이상입니다. 이번 사태로 공공보건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희망의 단초가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모두 함께’라는 그 슬로건 그 이상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간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도덕적이고 시민적인 토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선(common good)’에 이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출처 :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마이클 샌델 (제2편 공동체와 시민사회), 외교부 유튜브 (2020.6.8)

으로 우리는 결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단단한 내적 공동체일수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 새롭게 등장한 화두 변화라면 이런 생각을 지닌 개인들이 더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 것 아닐까요? **누구도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공동체와 조직이 꾸러지길 희망합니다.**

#INT4

두 명도 다수, 타인과 함께하려면 많은 시간과 배려 필요해

어떤 공통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같이한 사람을 알게 되면 꽤 친밀해지는 편입니다. 결이 같다면 물리적인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만남이 더 편안하고요. 코로나 이후 만남의 횟수는 줄었으나 질적으로는 더 좋아진 걸 느낍니다. 공동체라 하면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일까요. 내가 아닌 단 한명의 타인도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어도 저는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솔직하고 편안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하겠죠. 결국 타인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려의 방식이 그저 조심스럽기 보다는 **각자 개성을 드러내고 또 인정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과 진실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사회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확연히 다른 의미이지만, 겹치는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차별이 강화되면서
공중보건적 감염 예방 행동을 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래 의미가 다르게 번지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사람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란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가까이하기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NT1

‘공감대 형성’ 발판으로 삼아야

바로 지금, 문화가 가진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일례로 책읽기는 개별적인 독서 행위 이후 함께 이야기하며 사고를 확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좋은 활동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심리적인 가까이하기’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콘텐츠의 개발과 영역 확장도 함께 따라와야 하고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취미나 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아리 활동이나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SNS상의 예절, 윤리, 온라인 적정 사용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가이드가 어떤 방식으로 병행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INT2

서로 독려하고 의지하는 소통은 변함없어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어느 때보다 와 닿습니다. 특히 기존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 요소이겠죠.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낯설지만 분명 거리가 주는 쾌적함이 있거든요.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표정을 읽기가 어려워졌고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지만 전에 비해 더 활발한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정확한 목소리로 전달하려고 힘써요. 마치 외국인과의 대화를 하듯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기도 하니 심리적으로는 타인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기도 해요. 또한 화상 채팅 등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했던 도구가 부쩍 자연스러워진 걸 보면 소통을 하는 데 방식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익숙한 채널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원활한 상호피드백 기능이 생기거나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알맞게 편리해지고 있죠. 실질적인 대면이 줄어든 만큼 이러한 편의성에 기대 서로 독려하고 북돋는 관계가 변함없이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3

‘일상적인 협력과 연대’ 더 중요해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는 동물’이란 말을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곧 나의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곧 관계의 거리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자유가 확대될 때, 나의 자유도 확대되듯이 사회적인 재난을 극복하고 또한 개인의 생존의 중요성을 위해 사회적 연대, 협력, 배려, 존중이라는 관념어들이 일상에서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하겠지

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외된 이들과 소통하는 것,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더 자주 안부를 챙기는 등 사소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INT 4

선의, 더 높은 규범정신 선행되어야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론 마음을 나누는 일은 굳이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역사회에 이미 잘 안착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언택트 모임들은 앞으로 더 건재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친밀도와 상관없이 규칙을 잘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에 대한 보다 높은 규범 정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선의를 믿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다면 심리적으로는 꾸준히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하고 적절한 수준의 단절이 필요함을
오래전부터 느껴왔다.

그래서 언컨택트 개념은 수년 전부터
다양한 미래전망보고서에도 등장해왔다.”

“공존력을 높이는 방법은
Want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Like를 이해해서 같은 자원으로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출처 : 김정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해야 행복해진다’, 정책과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2020.06, Vol.55, 44-47쪽.)

Q5.

위 질문을 확대해보자 합니다.

국내 한 언론(SBS)에서 마스크 착용이

곧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문가(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시대 '한국적 협력주의', '한국적 공동체주의'가 갖는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이타, 배려 등)

즉 나를 비롯해 타자까지도 고려하는 협력이야말로

'한국적'이라는 수식이 붙는 함의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합리적인 개인주의'와 '합리적인 공동체주의'가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전문가(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말처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존·공생'하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Scene] 실험상황



동영상 이미지 출처 : <공동체 의식 키운 마스크...“당신과 나를 지키는 배려”>, SBS 뉴스, 2020.04.25

#INT1

작고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하기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상 마스크를 만들어 주변 이웃들과 나눠 쓸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농촌이나 화훼 농가의 작물이나 꽃을 사는 착한 소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나눔의 동력이 된 건 사실입니다.** 내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협력을 통한 연대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러한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INT2

개인의 존엄 선행되어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공존·공생은 마땅히 이뤄져야겠지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때론 큰 비전을 위해 일부 개인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대의를 위해 소수가 피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예민한 시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존·공생을 위해선 개인의 영역에 대한 존중이 뒤따라야 하니까요. 가령 우리가 쉽게 내뱉은 '가족 같은 회사', '우리 딸(아들) 같아서 그래' 등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강요되던 사적 친밀감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함께', '우리'로 연대하기 전, '나'라는 개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INT3

용기, 시민의식으로의 변화 있어

불의를 좌시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개인적인 관계에서 불편했던 유형 중 하나는 일종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참견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행동이 코로나19 속에서 때론 “용기”와 “시민의식”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의지가 도움이 되는 예입니다. 개인의 대한 존엄과 예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생각해보기'와 같은 환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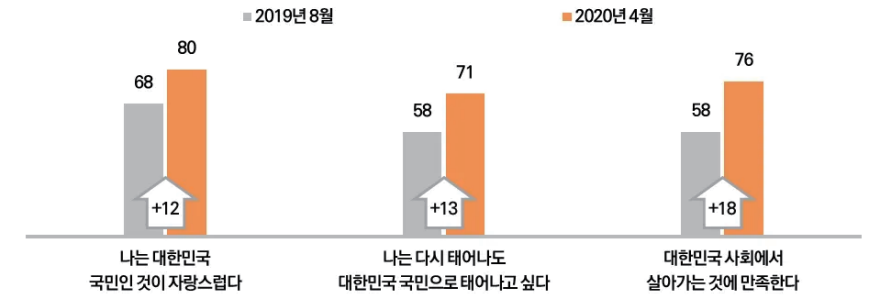
#INT4

사회적 재난, 공적부조 강화로 연결되어야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적 대응은 훌륭하고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이 곧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변질되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유행처럼 번지는 소위 '국뽕'이란 용어처럼 도취적 상태로 왜곡되어선 안 되겠죠. 이를테면 생명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함께 사는 사회에서의 상호부조는 '한국적' 의미 너머의 인류 보편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협력이나 상호부조는 낮은 편이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공동체주의를 말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 차원의 공적 부조의 확대 및 강화라고 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으로 직결되는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증세 등의 난제를 살핀다면 사회적인 재난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생존 보장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Reference

국가 자부심이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12~18%p까지 크게 상승, 코로나 19 대응의 영향이 커



질문: 1. 다음 진술 중 귀하께서 더 공감하시는 것에 응답해주세요.
2. 다음 진술 중 귀하께서 더 공감하시는 것에 응답해주세요.
3. 귀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1. 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②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다
2. 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② 나는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
3. 4점 척도임(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④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프에는 만족한다(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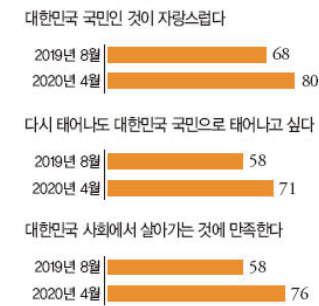
응답자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19년 8월 조사: 2019.08.23-08.26 2020년 4월 조사: 2020.04.10-04.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출처: '여론속의 여론' hrcopinion.co.kr

국가에 대한 자부심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리서치

“그동안에는 선진국에 대한 비판도, 한국에 대한 자긍심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리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한데 묶어 하나의 '주의(主義)'로 탄생시켰다. '국뽕주의'라고 할 만한 이 인식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긍심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 같은 주변국뿐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서구 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다.”

출처: 코로나19가 '젊은 국뽕주의자들'을 키우고 있다(2020.06.15.주간조선)

Q6.

지역사회 연대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인 김승섭 교수의 인터뷰가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난무하는 예측들이

‘가설’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사 속 비관적인 일상의 종말에 관한 것들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사회의 경험을 두고 이야기하길“ 바란 바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의 예측보다는 과거 사실이자 근거가 된 실제 ‘현상’과 ‘상처’에 근거해

‘경험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더 주목’해보자는 것인데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은 조금 덜어두고

과거와 현재를 고려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INT1

‘정보’의 소외에서 ‘생존’의 소외로 향하는 모습 목격해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3년 전 큰 피해가 난 포항 지진이 생각나네요. 그때 한 언론 인터뷰 영상에서 지진을 겪은 한 장애인 주민에게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현재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주변 사람과 그 도움’이라고 답한 게 와 닿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가 주는 이점과 상관없이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수준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서

◆ “누가 고통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많이 아프고, 힘들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은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한 것일 텐데, 그 대책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희생되는가에 대한 나온다. 정책은 미래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나와야 한다. 미래는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가 아니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밀고 나가는 게 미래다. 조금 더 많은 눈들이 우리 과거 경험으로 향했으면 한다.” 김승섭 인터뷰 중 ([코로나19와 삶] 김승섭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희생되는지 물어야”, 경향신문, 2020.04.24.)

비스 이용 자체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보 소외 현상은 자연스럽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세대 간 소통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INT2

과거의 잘못된 경험 등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우리 사회에 이미 팽배한 혐오나 무지 등이 염려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생존이 취약한 사람들, 또한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는 곧 무지를 낳고 또 배제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임의적인 추측이나 가설 선부른 추측으로 불러오는 위험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큼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올바른 전달이 필요합니다.**

#INT3

연대하고 돌아보는 ‘삶의 방식’ 배우는 계기가 될 것

이번 팬데믹 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든 사건이 또 있었을까요. 팬데믹 위기를 지켜보면서 슬로베니아 철학자 알렌카 주판치치(Alenka Zupancic)는 “지금까지는 인류애(Humanity)가 공허한 말에 불과했지만 지금 세계적 위기를 같이 경험하면서 인류애가 실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몇몇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차갑고 잔인한 생존 논리에 의존해 수많은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질병

에 희생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개별 시민들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지난 수 십 년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어느 국가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를 건디는 시민들의 연대의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들과 더 나누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방식 같은 것들요.** 정부와 지역사회가 구축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정착하고 더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INT 4

도서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문턱 없는 장소 되어야

코로나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나 청소년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요. 코로나 이전에도 청소년들은 도서관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고 대부분 학원과 학교에서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자연스레 이들의 쉼터와 공간이 될 도서관이 위축된 터라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서관은 편안한 공간이자 성장의 배양소가 될 수 있을지, 이 위기를 기회로 보다 더 문턱 없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Reference_book



『전문가와 강적들』, 톰 니콜스, 정혜윤 역, 오르마, 2017.

도서관이나, 아니면 적어도 도서관의 참고도서 책장이나 학술지 책장은 한때 저자거리의 소음을 우선적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했었다. 특히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일은,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를 맞볼 수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도서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무나 뭐든지 던져 놓을 수 있는 거대한 하치장에 가깝다. (200쪽)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이 우리가 읽고, 추론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 결국,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인터넷이 우리를 더 인색하고 더 조급하게 만들어, 누구든지 뭐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202쪽)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최민우 역, 문학동네, 2014.

『가짜 뉴스의 시대』, 케일린 오코너, 제임스 오언 웨더럴, 박경선 역, 반니, 2019.

『가짜뉴스의 고고학』, 최은창, 동아시아, 2020.

Q7.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종료 후

당신 삶의 만족도 전망”에 대해 질문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변함없다(39%), 행복할 것이다(32%), 불행할 것이다(20%)’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이 낫설고 또 새롭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방역 시스템의 일관성, 투명성 등에 힘입은

극복 의지로도 읽히는데 본인은 어떠신지요?

‘종료’라는 말이 아득하지만, 코로나19 그 너머의 당신 삶은 어디 있을까요?

그곳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당신의 전망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INT1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포스트 코로나’ 보다 ‘위드 코로나’(코로나 일상)라는 말에 더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전과의 삶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코로나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일례로 코로나 이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줄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개인위생과 방역이 철저해지면서 가벼운 질병의 전파와 감염이 줄어들었죠.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효율적으로 삶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하게 됐어요.

◆ 나우앤서베이, 20.04.28~20.05.06 자체 패널 대상 실시(총응답자 1,919명), 본 설문은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 이상의 남자 1,024명, 여자 895명, 총 1,919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4% 포인트이다.

Reference

나우앤서베이 핫이슈 서베이 결과 분석 중 일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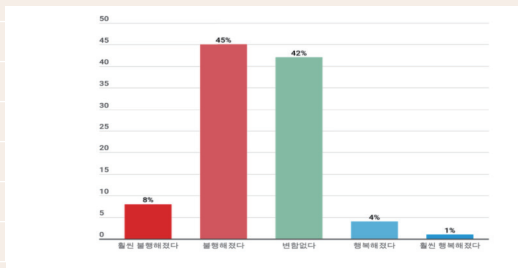
- 실시기간 : 20.04.28~20.05.06

- 대상 : 자체 패널 대상 실시

- 총응답자 : 1,919명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 이상의 남자 1,024명, 여자 895명, 총 1,919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4%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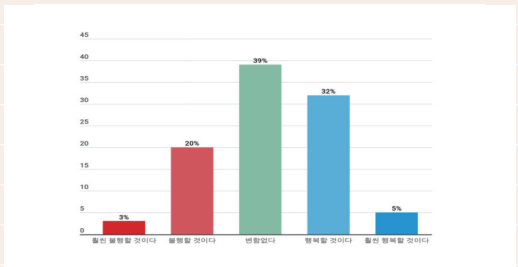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해 당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 불행해졌다(53%) vs 행복해졌다(5%), 변함없다(42%)



■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종료 후 당신 삶의 만족도 전망은?

- 더 행복할 것(37%) vs 더 불행할 것(23%), 변함없다(39%)



종합적으로 코로나19 종료 후 이전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37%)가 이전보다 더 불행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2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삶의 만족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39%)가 가장 많았다는 점 역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https://www.nownsurvey.com/board/hotissue/view/wr_id/135/ptype/all/stx/

#INT2

나와 사이 좋게 지내기, 천천히 살아가기

맑은 하늘 황사 없이 보낸 봄바람을 떠올려 봅니다. 길은 녹색이었던 강바닥이 몇 십 년 만에 투명해졌다는 베네치아 운하 뉴스도 기억납니다. 분명한 건 코로나로 인해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답답하고 우울한 나날도 있었지만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과거엔 남을 의식하고 신경 썼다면, 지금은 나,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집중하며 천천히 살아가는 듯합니다. **삶의 속도와 효율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에 대해 이후에도 계속 고민하며 살 것 같습니다.** 최근 읽은 최진영 작가의 <해가 지는 곳으로>(민음사, 2017) 소설 덕분에 스스로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소설은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전 지구적인 폐허와 약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암울함과 두려움이 그려져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여러 우려 속에서도 무사히 헤쳐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INT3

코로나 이후에도 내 삶은 행복할 것이다

그 외 많은 인터뷰이들은 코로나 이후 '내 삶'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부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삶이 계속될수록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더 매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되 안주하진 않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슬퍼하며 또 작은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작은 것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싶다.”

“나의 삶, 이웃의 삶,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삶까지도 아울러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 가까이 있는 곳을 향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새삼 다시 확인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각각의 대안을 찾아가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대안'의 힘을 믿는다. 그러므로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코로나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 극적인 체험이자 고민의 시작점이다.”

“이 난관을 함께 참아내고 버려낸 사람들이 모여 다시 이전의 일상적 가치들을 복원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재난으로 인해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파괴될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미로 살라자르 Ramiro Salazar 미국공공도서관협회(PLA)장
(출처 : 도서관, 코로나19로 대공황 이상 많은 수요 직면, 스마트시티투데이, 2020.04.17.)

Q8.

여기서부터는 도서관으로 플랫폼을 옮겨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재난 인문학’◆이 더 힘입어 진행되고 있는데

재난인문학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역사적·문학적·철학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인류가 재난과 마주해온 방식을 시공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즉 재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우리가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치유’나 ‘애도’의 과정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등 지방에서 이러한 사유들이 ‘강좌’ 등의 형태로 나오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함께 동의하고 발언할 수 있는 서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조선대 재난인문학 연구사업단은 한중일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인류가 재난과 마주해 온 방식을 시공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분석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INT1

‘정보의 선별과 관리’ 중요해져

재난에 대한 기억과 서사 그리고 치유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그동안 많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조선대의 경우 기존에 해오던 연구인데 근래 화두로 떠오른 것도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대중적이고 또 학술적인 교류의 장이 온라인에 힘입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건 반가워요. 특히 **과거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단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은 필수적이고요. 한편으론 순식간에 잊힐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 중요하지만 정작 소외되는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또 영영 소실되지 않게 잘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NT2

재난 속 '환경'과 '가치'에 관심 가져야

재난을 겪는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개발로 영향을 받는 자연과 환경의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산책하던 길과 동산이 사라지는 경험을 겪어보셨나요? 무심코 걸었던 길을 따라 자연을 향유해온 주민들 그리고 그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수많은 동식물에게는 일상의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지가 파괴되어 환경이 변하면 인간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심각하겠죠. 정보 격차는 물론이고 고통 받는 삶의 폐해는 시간문제입니다. **정작 중요하게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INT3

지역 안에서의 '사회적 서사' 부각되어야

세금의 중요성이나 공적 부조 강화 등 경제적 측면과 인문학적 이해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서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급된 기후문제나 생태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인문학의 역할은 보다 더 다양해질 것이고요. 아울러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논의와 실천 인문학적인 성찰과 비판이 함께 작동되길 바랍니다.

Reference

팬데믹이 증폭시킨 '불평등'

영국의 공공역학자인 케이트 피켓(Kate Pickett)은 빈곤과 교육 수준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 미국을 꼽으며,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불평등의 격차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일수록 생계 위기로 인한 감염증 노출 위험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병원에 온 사람들을 분류했을 때 '가난하고 비주류인 소수자', '과밀한 도심 주거지' 등의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았다. 즉 팬데믹이 증폭시킨 '불평등'은 세계의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의 문제인 현대인들의 '불안감'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증폭시키는 등 '사회적 평가 위협'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거라 했다. 이 치명적인 사실을 과거처럼 답습해선 안 되며 인류가 더욱 붙들고 개선해 나가야만 '위기가 반전하는 기회로 작동'하리라 예견했다.

사진 출처 :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⑤케이트 피켓 "경제 불평등 줄여 구성원 회복탄력성 갖춰야 팬데믹 극복 가능"(2020.6.4)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 그래도 다시, 일상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 한 분은 재개관을 하자, '일상이 한 걸음 더 다가온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생활을 낙관합니다. 도서관이 휴관을 하고, 다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놀랐던 점은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공공기관이지만 '도서관'은 그 자체로 개개인의 삶 속에 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도서관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의 일상 한 조각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코로나로 새롭게 깨달은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은 무엇인지 함께 발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역에서 서로 보듬기

도서관 직원으로서 '북스타트' 활동을 담당할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북스타트 활동가들이 주 1회 도서관에 모여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책놀이를 진행해주십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봉사정신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에 대해 물어보니,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은 바쁜 일정 중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업무'나 '과제'로만 느껴졌던 일들이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놀라운 얘기에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기대고, 또 서로 보듬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불안이 고독이 되는 순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정서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 불확실하고 연약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고독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책읽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고독의 순기능에 대하여, 형형한 개인이 되는 순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지금, 우리의 현실을 담는 도서관

소위 탐욕적인 자본주의 부작용이 지금, 우리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역의 위기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마을의 재개발, 경제, 교육 분야의 다양한 위기들이 ‘재난’이라는 주제 안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상생과 공존의 힘을 믿고, 도서관이 그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 이후, 회복자들에 대한 이야기

서서히 코로나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완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걸 보면 그들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즉 ‘완치’가 아닌 ‘회복’된 이들이 갑작스럽게 얻었던 고통이나 주변으로 받았던 편견에 대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낀 타인을 향한 불편함, 부정적인 시선, 혐오까지도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아우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서사’

성북구의 가장 작은 지역도서관에 일하는 사서로서, 아이들은 재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래에는 지금의 어른들보다 의연하게 재난을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

처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중심으로 성북구의 재난의 역사를 돌아보고, 실제 극복해 나간 과정 등의 사례를 아카이브해 전시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의 역사와 책 속의 상상이 맞물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갈 내면의 힘이 길러지길 기대해봅니다.

+ 도서관이 사람을 키우는 곳으로

도서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눈뜨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공교육이 끝난 내게 새로운 배움의 장소였고, 내 인생의 깊이와 성찰을 더해주며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따뜻한 공간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인 ‘It takes a village’란 말을 바꿔, ‘도서관이 사람을 키운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가 보존될 수 있는 정보보관소,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 수시로 가서 누구나 만나는 이야기 공간, 힘든 상황에서도 정보를 주는 지역정보원 등 도서관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Q9.

미국공공도서관협회장 살라자르Ramiro Salazar의 말을 빌리면

“역사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공공도서관 이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문서화”됐다고도 합니다.

즉 도서관이 어느 때보다 구직자들에게 구직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라는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더욱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해외의 카운티시설, 시민센터의 역할처럼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어 정보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은 기존에 하고 있던 커뮤니티의 성격에서

무엇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것이 수렴되는 방식이면 더 좋겠습니다.)

#INT1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제공 활성화 도움 돼

도서관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유의미하고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계층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하루 종일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어린 아이,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노인, 장애인, 구직자, 실업자 등. 코로나로 인해 보다 삶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도서 심리 치료 등 정서를 다독이는 역

공지사항 행사안내 코로나19		
통합	[주요기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결혼식 못한...	2020.09.08
통합	[주요기사]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세요	2020.09.08
통합	[관련기관] 정부, 추석 연휴 이동 자제 요청... "무증상..."	2020.09.07
통합	[주요기사]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9월 13일까지...	2020.09.05
통합	[주요기사]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자 수능 원서 대리접수...	2020.09.03
통합	[맞춤정보] 마스크 착용 이렇게 실천해요 [마스크 착용...	2020.09.02
통합	[주요기사] 코로나 19, 위기에 처한 이웃들	2020.08.30
통합	[주요기사]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누구 탓일까?	2020.08.30
통합	[관련기사]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문화가 된 마스크	2020.08.30
통합	[주요기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2020.08.30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코로나-19 정보서비스' 게시판

할을 지역도서관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회성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벗어나 삶 속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2

지역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도서관을 꿈꾸며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사서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북큐레이션, 책테라피 등 책을 매개로 한 상담과 처방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지관, 보건소, 직업소개, 진로지도 방안으로 연계되거나 취미, 건강 활동으로 심화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모르는 식물이나 곤충을 발견하면 부모와 찾아보고, 해결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지역도서관 사서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맞춰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탐구를 이어갑니다.** 우리도 도서관이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사서가 북돋으며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죠.

#INT3

‘공공’도서관에 대한 방향성과 성찰 이어져야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커뮤니티에 무엇을 보태기 전에 이제까지의 발자취를 잘 검토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령 지역에서 무수히 해왔던 다양한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 강좌와 독서회 등을 대상으로 ‘지금, 왜?’

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이미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고 또 환기하려면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 주민 개개인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INT4

경쟁의 공간 너머 사회적 역할로 발돋움 해야

이미 사회적 돌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역할 이외의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고 확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새로운 삶의 지식이 창조되고 공유되고 또 확산되는 공간’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도서관은 개인의 지식 정보를 위한 경쟁의 역할 너머 공적 자산으로써의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체계의 유효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할수록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도서관이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극대화해 지역사회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준다면 어떨까요. 에릭 클라인버그(Eric Klinenberg)가 주장하듯 도서관은 ‘인민의 궁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련해 왜 북유럽 국가의 문화정책에서 도서관 정책이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로 선택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은 지식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삶의 공유 커뮤니티로 향하기 위한 주요 근간이 아닐까요.

Q10.

문학과 예술 등을 매개로 도서관과 지역주민이

서로 시너지를 얻는 일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일례로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의 문학 향유를 도모하는 데 그 목표를 둡니다.

작가와 도서관 이용자의 ‘네트워크 형성’이 지역의 문학 수요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우리 주변 마을에서 ‘예술’이 일상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 어떤 시선들이 필요할까요.

#INT1

예술의 기반은 독립성과 자율성

예술가를 지역사회 안으로 편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 예술가는 분명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공적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도 있고요. 지원과 동시에 예술가들의 실천 방식과 목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예술’과 ‘예술가’가 되려면, 근대 이후 예술이 추구해 온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의 기반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미학적 가치보다는 ‘일상’이라는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고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 중 ‘문화예술의 뉴딜’은 예술가들이 미국인들의 삶, 특히 피폐하고 고통 받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의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공공 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학 향유를 돕는 사업이다. 문학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문학 관련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여개소 도서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우리 사회의 예술과 예술가는 사회 부조리, 불평등, 고통 받는 사회 약자들의 삶을 조명해 주고 그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을 제시해야 합니다.

#INT2

예술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도 인정받아야

예술은 분야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중 미술 분야도 예정된 전시가 대폭 취소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경우 전시를 개최한다고 해서 즉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소위 ‘보이지 않는’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만 하죠. 작가들은 전시 아닌 시기 동안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시간을 쏟아요. 어쩌면 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작품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니까요. 유럽의 경우 이미 예정된 공연이 코로나로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에선 어느 때보다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작업을 전면 바꿔야 하는 상황은 분명한 위기이니까요. 그들의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하고 대중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술가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작가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NT3

예술의 위기일수록 예술의 필요성 더 느껴야

재난 시대 예술가의 역할은 예술가의 눈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전염병,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등)

을 헤치며 어떤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그려보기에 앞서 어떤 노력을 수행해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예술인들은 이러한 근본적 물음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사유하고 그 통찰력을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할텐데 그런 역할에 '예술'이 함께 해야 함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향유되었던 예술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일상과 생활을 아우르고 어느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예술이 더욱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이 위기일수록 문화·예술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온라인 공연이나 전시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갑게 느껴져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작은 시도 중 하나일 겁니다. 예술가들은 동시대 변화를 가장 예리한 촉수로 바라보는 이들이니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 기대됩니다. 지역에서도 예술가들을 지켜내기 위한 뜻 깊은 움직임들이 있고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나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지역 도처의 시민문화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복돋는 사례도 다양합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하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1.

일명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시대입니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노약자들, 그리고 노동자 등 특정 연령이나 직업 및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남녀 절반 이상이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외출자제 등의 고립이 그러한 무드를 자연스럽게 형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무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도서관 등지에서 다양한 챌린지와 함께 코로나 극복 캠페인들도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책'에 국한하지 않고 책을 주축으로 가족상담이나 그 외의 방식으로 외연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이를 동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방안들 무엇이 있을지, 그 방법이 단기성 이벤트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이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요?

#INT1

천천히, 다같이, 그리고 공간을 발견하는 일

코로나에 맞춰 동네 책방이나 작은 지역 서점에서 책을 중심으로 하는 재미 있고 적극적인 '챌린지'가 부쩍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느꼈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후기를 공유해나가는 방식이었는데 강요나 압박 없이 즐겁게 또 부지런히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곱씹고 탐독하는 행위를 통해 그간 숨차게 느껴졌던 삶의 속도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도서관이 개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동네 공간을 탐방하는 재미도 있어요. '아, 이런 곳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생각지 못했던 동네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도서관이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과 실천 그 자체만으로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

#INT2

고독에 대해 탐색하는 방법

외로움과 고독이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 있다는 공포가 아닐까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 안부를 묻는다는 안도감을 작게나마 꾸준히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서관이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 우울을 가장 극심하게 겪을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온라인 세미나, 비대면독서모임, 노인 분들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사용법과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T3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장 마련돼

‘온라인’이라는 낯설지만 또 매우 익숙한 경험은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기회는 무궁무진해졌습니다. 정보를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이라도 실패를 경험삼아 가능성을 만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도 충분히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임을 증명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INT4

커뮤니티의 안정적인 장기화 마련되어야

점차 일상적인 활동이 제한되는 상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사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도서관 현장에서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공동체를 위한 콘텐츠와 캠페인을 이어가려면 **산재된 단기적인 이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도서관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 역할 외에도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도서관의 새로운 면모들, 노력과 실천으로 경주할 필요 있어”

#INT5

다시 ‘책’을 생각하다

코로나 우울을 견디고 극복하는 방법 중 책의 중요성에 대해 짚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책에 기대고 또 책의 가능성에 대해 환기해봐야 하겠죠. 원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책은 이용자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책을 중심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무엇이든 펼쳐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책은 자율적인 모임의 근간이자, 우리를 잇게 해주는 매개이니까요. 도서관의 든든하고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책의 생명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12.

비대면 활성화가 이슈로 떠오르며 새로운 방식에 도전받는 중입니다.

도서관 역시 국내 드라이브/워킹스루, 해외의 통학버스/슈퍼마켓 등을 이용한

대출서비스까지 최대한 안전하고 다양한 방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대출이 늘어난 점도 이를 방증합니다.

모임 역시 비대면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화상강의처럼 도서관도 온라인형태의 친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성북구립도서관 한 책 사업 관련 책추천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상의 마을광장은 우리 곁에 성큼 와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는 이어져야 할텐데요. 이야기를 만들고 모여며 나누는 장,

그리고 실제 공간이 될 새로운 공론장의 형태는 어떨까요?

그에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INT1

더 만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법 모색해야

거리두기 방침으로 위축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 ‘똑똑’ 노크 해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 말 거는 게 필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희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지요. 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온라인 콘텐츠 진행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구독자들의 소통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이뤄지는 점이 놀라웠어요. 코로나와 상

관없이 기존에 온라인 활동이 익숙한 세대가 더 드러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와 확장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규정짓거나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외연을 넓혀가는 경험들이요. 여러 매체를 이용해 그 느낌을 나누고 또 보완해서 다채로운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INT2

무엇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매체 속도는 더 빨라지고 그 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이 마련된다면, 그곳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즉 온·오프라인의 형식 문제를 차치하고서 이제는 어떤 의제를 다루고 어떤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공론장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대비에 앞서 다시 왜? 라는 자문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INT3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독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 명 남짓 함께 책을 읽고 또 작가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이러한 체험이 제게 새롭고 신선했어요. 도서관에서도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커뮤니티가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한다면 구성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특히 구성원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사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조율해나간다면 자연스러운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INT 4

가상의 공론장 속 도서관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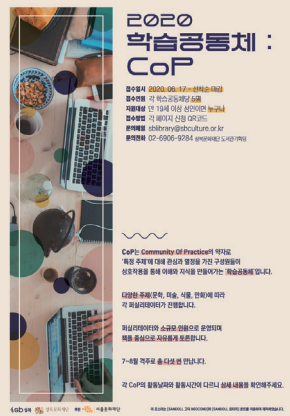
이번 코로나로 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빼고 가상의 공론장을 만든다면 극단적으로 도서관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도서관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은 또 다른 공론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죠. 공공성에 의거해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고 시민과 국가를 연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요. 필히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면 **구축된 온라인 공론장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도서관’을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Q13.

‘도전’을 직접 받고 있는 주체는 바로 도서관 내 운영자인 ‘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고 소통했던 역할이었기에 조금 거칠게 말하면, 사서는 다른 ‘영역’의 역량을 요구받는 것을 너머 사서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과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자원이 더욱 절실해진 이때 사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게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나가는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인적자원만이 선보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디지털시대 적재적소 새롭게 구성하고 드러내는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자(수요자) 측면에서 이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Reference

학습공동체, CoP로 새로운 만남과 연대를 모색하다



성북문화재단 도서관기획팀에서는 관내 생활문화공간을 주축으로 주민 주체의 적극적인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생산적인 상호 활동(관계맺기, 토론하기, 글쓰기 등)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참여와 지식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넘어 ‘사회적 만들기’ 일환의 생활문화활동으로 확산되고 구성원들의 고유한 지식체계를 체화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 구축의 근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CoP(Community of Practice)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일련의 문제 및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주제 영역에 대해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식을 깊이 있게 만드는 집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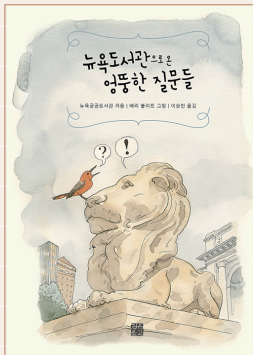
#INT 1

사서와 함께 삶이 풍성해지다

개인적으로 사서 분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는 주로 업무를 보고 계셔서 소통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도서관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서는 낯설 수밖에 없고요. 지인 중에 사서 일을 하다가 현재 번역 작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일상 속에 항상 책이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삶이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사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궁금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듣고 싶어요.** 가까운 언니, 인생의 선배라고 느껴질 만큼 친근한 존재가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그들에게 책을 소개받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요.

영똥한 질문이라도 좋아요. 영상매체가 익숙한 시대에도 저는 여전히 종이 책을 찾아서 읽고 지나는 역사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그 곁에 도서관, 그리고 사서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리라 생각해요.

Reference_book



『뉴욕도서관으로 온 영똥한 질문들』

뉴욕공공도서관, 배리 블리트 그림, 이승민 역, 정은문고, 2020.

이 책은 미국 뉴욕,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보낸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11명의 사서들이 이 질문 가운데 106개를 추리고 답변을 정리해 만든 책이다. 영똥하다는 발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질문들이 품고 있는 역사, 질문들이 품고 있는 시민의 일상들의 면면이 보인다.

이 질문은 '영똥'하게 던져졌을 수 있지만, 그 수신이 정확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오래된 영똥함이 안착한 곳이 다름 아닌 지금 현재의 '도서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전달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누군가 나의 질문을 읽을 것이라는 것, 누군가 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는 것, 누군가 나의 질문에 응해준다는 것.

영똥하고 일방적이며 또 기막힐 질문들이 마음속에서만 부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닿고 읽힐 때, '질문의 가치'가 생긴다. 해묵고 빛바랜 질문들이 '다시' 던져져야 할 때다.

#INT2

시대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사서

정서적인 교감 차원에서 사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머잖아 종이 책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떠올랐어요. 2020년 현재 종이책은 건재합니다. 여전히 책이라는 물성과 그 물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친밀성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향하는 행위, 내 주변의 사

람들에게 말 걸고, 또 사서와도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용자에게 정보 외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서비스에 발맞춘 디지털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서가 지닌 본래의 역할을 지금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위로, 사람들과 나누는 교감으로 사서는 우리 시대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INT3

행간을 읽는 사서

사서의 역할 중 하나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매개 그 너머에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에서도 점차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해오는 걸 봐왔어요. 하지만 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인 큐레이팅에 그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서들은 그들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닐까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알고 파고든다면 사서는 분명 미래의 전문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INT4

사서, 전문가임을 잊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야

#

지금까지 만나 본 사람들 대부분 사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임시휴관이나 부분개관이 반복되며 사서의 일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탄력 받아 사서의 존재를 더욱 알리고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내부적인 힘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주체의식을 잃지 않고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함께 토론하고, 협의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비전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근본을 잃지 않되, 이용자의 기대 가치를 끊임 없이 읽고 함께 움직여야 하겠지요.

#

사서가 지역, 소통, 협력, 공유의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과 자산을 바탕으로 의미를 만들고 확장해야 합니다. 시류와 유행에 편승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성장시켜야 하고요. 유튜브 영상 시대 2013년 개설한 성북문화재단 구독자가 700여명이 넘는 것도 그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예민하게 관찰하되, 우리의 일상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예술자원, 출판사, 작가와 협업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없는지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에 대한 교육이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고 또 사서 모두에게 그 인식이 제고된다면 좋겠습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역량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부를 마치며

나, 우리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다

2부에서는 코로나19로 체감하게 된 삶의 변화를 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 우리, 주변, 그리고 도서관으로까지 점차 확장해 나갔다. 비대면 시대 달라진 일상 중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였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있으면 최대한 협업하고 양보하며 균형 있는 생활을 만들어 나간다. 비대면 시대를 누구보다 불편함 없이 적응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가. 이미 디지털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행연습해온 이들에 관한 시선과 관점은 다양했다. 특히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선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산으로 삼아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중재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이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세대의 책무가 동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각자도생’의 특징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느슨한 공동체가 호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느슨한 공동체는 또 다른 힘이자 보다 단단한 ‘내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라는 점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즉 ‘느슨한’이란 개인의 차이이자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경험’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진실한 관계맺기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가까이하기를 병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제안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문화

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작은 모임들을 통해 취미와 정보 공유는 물론 온라인상의 새로운 교육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연대와 협력, 배려와 존중이라는 관념어들을 실제 일상에서 실현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에 대한 선의를 믿는다면 관계들은 변함없을 것이라 믿었다.

한편 광의적이고 국가적인 의미로 소환되는 '한국적 공동체주의'의 특징은 그 결이 좀 다르다. 물론 우리 정부와 사회적이 대응은 우수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이것이 자칫 변질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협력과 상호부조가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으로 이어지는 재화 등 서비스의 확충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과거를 읽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에 팽배한 혐오와 무지 그리고 여러 잘못된 경험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일상에서도 내 삶은 행복할 것이라는 전망

그럼에도 내 삶에 관한 전망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코로나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재난이 나를 절망과 고락으로 빠뜨리기 보다는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향하며 공존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동시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까운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적인 가치들을 복원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

다시 도서관을 향해, 내 삶의 도서관

도서관을 플랫폼으로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것으로부터 그 가능성은 시작된다. 특히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코로나 일상'이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재난과 기억의 서사를 함께 나눠야 하지 않을까. 재난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임을 상기하고 지역과 사회 그 공동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생명 중심의 논의와 실천이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나눌 수 있는 화두는 무궁무진하며 도서관이 그 장을 만드는 데 주요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전에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나눈 커뮤니티는 어떻게 변주되고 확장되어야 할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속에서 도서관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다. 선별된 정보를 이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보도서관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성에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도서관이 지닌 자원들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책을 중심으로 사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북큐레이팅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며 사서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심하여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예술가를 지역사회로 편입하는데 도서관이 작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학이나 예술의 고차원적인 개념을 내 결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마을예술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은 경쟁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인 역할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잠식될 때 도서관은 건강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울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독에 대해 함께 탐색해볼 수도 있다. 주체의 가치를 뺀 매개체를 끊임없이 만들고 환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주체가 될 사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전문적인 큐레이팅 시대에 발맞춰 시대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사서 내부의 힘을 길어 올려 스스로 협력과 소통의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도서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고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파동은 결국 우리가 닿고자 하는 만남과 실천, 이야기와 고민, 의제의 공론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전망, 영상으로 함께 보다

2020년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토론과 포럼이 펼쳐졌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돌아보고 또 내다보는 전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01. '코로나 이후의 세계 :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기 소르망 Guy Sorman, 외교부 유튜브(2020.5.15.)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9Laa_LsZ5xc&t=493s

공동의 선을 향하기

“세계적으로 같은 싸움,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럴수록 ‘의존’, ‘동일성’의 개념 등 생각해야 할 때다. 특히 한국과 대만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의 사례가 놀랍다. 한국의 경우 정부 신뢰 등 정부의 정당성이 높아졌다. 연대와 공동체, 믿음과 단결 같은 사명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가지 내가 한국에 대해 걱정했던 것은 개인주의가 뒷전으로 밀릴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는데 지금 시국으로서는 개인보다 연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 개인과 연대 그 사이의 어디쯤에 있으며 그 균형을 찾고자 하는 단계인듯 하다. 전략 개념 역시 여기에서 중요하다. 미래 선진국 개념을 재고해볼 때 ‘보건의시스템’ 부문이 순위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데 한 몫 하리라고 본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선 ‘common good’이 아닐까. 고용활성화 역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서구지식(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길 바란다.”

02. 코로나19와 환경위기-진단과 문제제기 (TBS 시민의 방송, 2020.5.14)

난감함을 공유하며 질문을 던져보자!

“이제 학교에 간다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어린 손녀가 내게 묻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문들을 응용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롭고 재미있는 실험들을 어떻게 규정짓고 어떻게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위험과 불안이 증대된다고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답은 늘 있어온 상태입니다. 상호 투쟁의 법칙이 아닌 상호 부조의 법칙에 의해서요. 이제부터 각자 선 자리에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가 즐겨왔던 소비 사회 안에서 너무 덜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이제부터는 ‘불안’을 남들과 의논하며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감함을 공유하며 질문을 던져봅시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_UStH8G72BY&t=6142s

03. 위기시대, 사회적 돌봄과 공간 변화 (DDP 디자인 뮤지엄, 2020.8.13.)

조한혜정 교수는 자본주의라는 위기시대에서 나눔과 협력, 공존과 관계, 치유와 돌봄으로의 전환에 대해 연구해왔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시대에서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새롭게 들릴까.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zRfE3QY3Y0&t=7517s>

3M에서 3E로!

3M(Money, Market, Me)은 돈과 효율, 승자독식, 약육강식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로서의 나’가 독존하는 세계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제는 3E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3E는 Excellence, Engagement, Ethic을 표상합니다. 지금 시대를 넘어서는 탁월함, 사회적 관여, 윤리가 동반되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믿음 속에 소통과 상생, 자율을 꿈꿉니다. 과거 화폐가 순환되는 체제에서 이젠 ‘돌봄’이 순환되는 세상으로 가야할 때입니다. 스스로 돕고 더불어 도우면서 새로운 공공을 만드는 사회적 자유로 향할 때입니다.

04. 2020 경기도도서관 온라인포럼 「비대면 시대, 도서관 서비스를 말하다」

1회 비대면 시대, 도서관 서비스 사례 (2020.8.24.)

1회차 포럼에서는 비대면 시대 각 도서관의 현재 상황을 공유한 뒤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서관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온라인이라는 공통 기반 같지만, 지역 기반에 따라 섬세한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계속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가 확장됨에 따라 그에 알맞는 정보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민의 ‘자발적 고립’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을 상기한다는 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시민들의 치유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영상 콘텐츠가 주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와 재미도 함께 도모되어야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조화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건 현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요자(이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축적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또 분석되어야 하겠죠.”

“현장 사서들의 업무와 관련해 부담과 두려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온라인’으로 부각되고 또 확장되어야 하는 고민이 계속되는 지점입니다. 현재 근로장학생, 대학생 등과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홍보 역시 기존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전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이용자들에게도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해 온라인으로의 접근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서비스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관한 기존 정보미디어 및 리터러시 운영 방안도 어떻게 온라인화할 수 있는지 도서관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2회 비대면 시대, 디지털콘텐츠의 방향 (2020.8.31.)

2회차 포럼에서는 비대면 시대, 급증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



“원형의 콘텐츠(스토리텔링)에 기술과 자본이 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강화되는 문화콘텐츠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하며 나아가 기존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본질인 ‘원형’을 잘 파악해야 디지털 작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해지는 채널과 그 유형, 출판사의 변화 및 독자 변화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방향’ 아닌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그간 보여주지 못한 것들, 숨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해야 할지, 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하고 나아가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함께 갈 것이다’(정재승)라는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고민은 실로 다양합니다.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디지털 기반으로 자료를 어떻게 수집

하고 콘텐츠화할 수 있는지, 브라우징이나 큐레이션 등 디지털자료 특성에 따른 서비스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함께 하고 도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써 도서관의 공간성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디지털시대의 맞춤형 서비스인,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써의 ‘공간’의 상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를 통한 새롭고 다양한 ‘생산’ 등 변화된 모습을 간파해야 합니다. 특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연대 차원에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경험의 콘텐츠화’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회 비대면 시대, 도서관 공간 또다른 시작 (2020.9.7.)

마지막 포럼에서는 비대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제언이 이루어졌다.

“비대면 시대를 기점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통해 최대화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특히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사서는 데스크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한 서비스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지요.”

“이제 공간에 대한 역할과 가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굳게 닫힌 자료실과 열람실 등의 이전 경계들을 허물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물리적인 변화에 서부터 공간의 공유 개념 전환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비대면 공간에서의 사서의 역할을 어떨까요. 어쩌면 역발상적으로 시민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사서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공간에서 사서의 역할과 가치가 드러나도록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책 중심의 서가가 아닌, 사람 중심의 공간이 드러나는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중대 변수를 맞이하면서 도서관의 공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선을 재구축하고, 각 환경과 상황에 맞는 공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서관 공유 개념을 환기해 ‘소유’의 공간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개별성이 강조되면서 자기만의 방에서 글을 쓰듯, 더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좋겠죠.”

“비대면 시대, 사람들이 드나드는 따뜻하고 온전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행동 약자나 어르신 등이 현장에서 보다 더 수월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05.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책 포럼 (2020.9.4.)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 도서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일상에서 도서관이 어떤 노력과 도전들을 해야할 지 전망한다. 기조강연을 필두로 주제발표 그리고 공공·학교·대학·전문도서관의 토론이 이뤄졌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JgUahHVYLM>

기조강연

이제는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란 숫자 중심의 평가가 아닌 ‘도서관에서 얼마나 탁월한 관계성이 이루어졌는가?’가 주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 집단 지성이 강화되면서 도서관은 질문을 던지고, 지식을 생산하고, 나누는 시민의 공간이 될 것이다. 사서는 아카이빙, 큐레이팅, 퍼실리테이팅의 역할로 발돋움해야 한다.

주제발표

기술을 활용한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안전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문제, 인적 자원의 재구성과 서비스 혁신, 도서관의 재정과 예산 분배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코로나에 맞서 각각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당면한 총체적인 문제

들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 변화의 노력으로 광역단위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 도서관법과 관련된 여타 법과 제도의 개선, 함께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인 구조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진지한 상황파악과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마련되어야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그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이 맞이한 위기는 보다 선명하다. 그만큼 기존의 허약성이 노출되었으며, 여전히 전략적인 역할을 찾지 못한 상태가 대다수다. 즉 대학도서관의 공간과 장서, 서비스 등 도서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대응 전략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전문도서관(의학도서관)

보건의료의 최전선인 병원과 인접한 의학도서관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자료 및 연구 지원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형태’가 되어야 할 도서관 자료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간 역시 공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이 담보된 ‘성장 가능한 학습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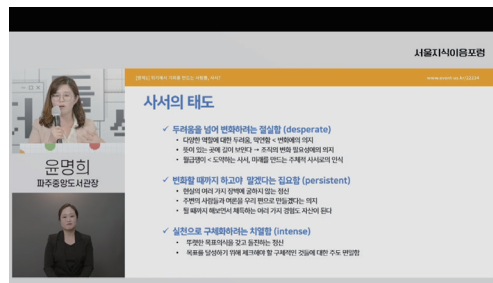
06. 2020 서울지식이음포럼 「대체불가능한 사서의 비밀」 (2020.10.5.)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사서?’

불확실한 시대, 삶에 필요한 정보를 큐레이팅해서 제공하고,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한 관계형성의 공유지로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곳, 기술혁명으로 급격히 강화될 디지털 격차로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장비를 지원하고 리터러시 교육을 일상화하여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곳, 촘촘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복지, 일자리, 경제활동, 건강, 금융, 생활문화, 환경 등의 각종 생활정보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연결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서이다.

V읽어라, 만나라, 기록하라, 공유하라

“사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 사서는 시대와 사회를 읽고, 변화를 감지하며, 지역사회 요구와 시민의 정보요구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파트너인 ‘시민’의 곁으로 가야 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을 과제해결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출처 : <https://event-us.kr/jt2rGjdhNSSw/event/22234>

07. 제6차 사서릴레이 대토론회 재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다

2020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사서협의회) (2020.10.28.)



출처 : <http://kla.mlive.kr/main.php>

2020년 제 57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진행한 사서릴레이대토론회에서는 재난상황에서 ‘한국 공공도서관의 대응매뉴얼 방향’과 ‘서비스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이 겪은 변화와 그 대응현황을 나누고, 운영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특히 비대면 시대, 사서로 살아남기 위한 고민과 과제는 계속 생각해보란 한 이야기다. 이외에도 해외 도서관(미국, 호주, 영국 등)의 재난 상황 매뉴얼과 주요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도서관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풀어야 할 질문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위해 도서관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08.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

SDF (SBS 사회공헌지식 포럼) (2020.10.30.)

SDF에서는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였다. SBS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천 명에게 물은 결과 4명 중 3명이 코로나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본인의 삶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과 '불확실성' 순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가치로 타인에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Hjmn3NWF1A>

대한 배려와 존중을 곁들였다. 특히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통합과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봤다. 21세기 자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글로벌리즘globalism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규범을 용인하고, 경쟁과 동시에 화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문한 '연대에 기반한 국제적인 공조 방법'에 대해서는 타국의 의료 데이터를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고 취합할 수 있는 글로벌한 공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현재 모두에게 처한 공동의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글로벌 협력 능력을 극대화해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제언했다.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란
숫자 중심의 평가가 아닌
‘도서관에서 얼마나 탁월한 관계성이 이루어졌는가?’가
주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 집단 지성이 강화되면서
도서관은 질문을 던지고,
지식을 생산하고, 나누는 시민의 공간이 될 것이다.
사서는 아카이빙, 큐레이팅,
퍼실리테이팅의 역할로 발돋움해야 한다.

출처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책 포럼 (2020.9.4.)

3

온라인 대담으로

물고 나누다

본 온라인대담은 경기도 도서관 총서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의 한 챕터인 ‘도서관 중심 전문가들과 만남’의 일환으로 구성 및 기획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또 일상적인 물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북구의 도서관 사서를 포함한 지역 인접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삶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2020년 지금, ‘나’라는 개인, ‘우리’라는 공동체는 매일매일 같이 있지만, 따로 떨어져 일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의 삶과 면밀한 공간인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노하우를 공유하며, 어떻게 극복하고 연대하는 동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작은 대안을 만들고 미래를 모색해봅니다.



“우리는 ‘가상의 마을광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상회의 모임에서
지역 의료진들이 방역 팁을 제공하고,
지역의 헬스트레이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한다.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리카 그로스만 Erica Grossman,
콜로라도 애니싱크(anythink Lib, CO) 도서관장
(출처 : 언택트시대 도서관은 어떻게 달라질까?, 티타임즈, 2020.04.27.)

대담1

대응을 넘어 전환의 시대로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전문가 온라인 대담 1차

일시	2020년 9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온라인 줌(Zoom) 미팅
대담	김지혜(서울시주무관), 박현경(파주가람도서관장), 강영아(성북정보도서관장), 윤정환(노원구주무관)
진행	도서관총서 연구진

도서관총서 연구진 도서관의 현장들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를 것이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는지 도서관 일상의 모습을 공유해 달라.

“일상의 혼란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 가능한 기반 마련해야”

강영아 현재 도서관은 멈춰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서관이 과연 무엇에 우위를 두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기존 도서관의 일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리듬을 찾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다. 도처에 퍼진 ‘코로나 우울’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단체나 기관의 문제로도 인식될 정도다.

김지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사서들의 피로도가 일상적으로 누적된 상태다. 운영 측면에서 ‘서비스’를 필두로 환경에 맞춰 변화하며 고민하지 못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민들과의 관계 등 외부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업무와 관련된 굵은 문제들에 대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사람이 바뀌어도 일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직적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내·외부적으로 환경 변화가 잦은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다.

박현경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혼란’이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사실이다. 도서관의 컨디션에 따라 사소한 기준점을 잡는 것조차 혼란스럽고 똑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번복된다. 의사 결정이 잦아지는 만큼 혼란스러움도 가중된다. 특히 도서관의 공간에 대해서는 ‘여가·취미의 공간’이나 ‘생활에 밀접한 필수적 공간’이나에 따라 개·휴관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과의 부침이 계속되는 상태다.



윤정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 및 연기 상태를 보니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이전의 전면 휴관에 비해 도서관들은 여가와 교육의 관점을 견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전자책과 관련한 대응은 각 도서관마다 다르다. 언제든 긴급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유연하게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다른 형태가 될 도서관의 모습은 어떤가. 이른바 새로운 표준(뉴노멀 New Normal)에 대해 고민하고 구상할 때다. 과연 이러한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예상 가능한 변화나 상황에 대해 제안해 달라.



박현경 ‘뉴노멀’에 대해서는 전자책이 중요한 화두이자 또 난점이기도 하다. 특히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원’에 있어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이 익숙한 건 물론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전자책을 활용하는 어려움도 있다. 특정 도서가 특정 전자도서로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쇄자료나 디바이스 형태를 떠나 결국 책을 읽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사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전자책도 여타 인쇄매체처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관련해 도서관의 미디어 교육 등을 실시해 볼 수 있겠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영리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도서관이 지향하는 본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마을 및 지역과의 관계 및 연대, 도서관의 공공성, 지식공동체로서의 플랫폼 등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노력들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진짜 ‘전환’으로 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 시작해야”

강영아 이제는 ‘대체’ 차원 너머 적극적인 ‘전환’에 대한 고민으로 들어갈 때다. 어느 칼럼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이 생각난다.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우정을 배우러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 이것이 학교의 역할에 대한 전환이라면 도서관의 역할 역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로 이뤄져야 한다.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의 방법 중 기술적인 뒷받침이 한 축이라면 나머지 다른 한 축은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전환이라고 본다. 현재 있는 틀에서 다른 대안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진짜 현장은 어떤가. 그간 매체를



접근하는 것에서 동떨어졌던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오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늘 말해왔던 연대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지점이다. **도서관의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자칫 두렵고 불안한 생각일 수 있으나 ‘전면적 전환’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박현경 두렵고 불안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문의 전화가 부쩍 줄었다. ‘아, 도서관은 잊히는 건가’하는 생각이 문득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다. ‘고립’이 일상화된 세계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환의 관점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단순히 세대를 분류하는 방법 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것보다는 정말 사소하고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내 곁에 가까운 나의 아버지, 나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연대’의 시작점을 마련해보자.

김지혜 아이들의 달라진 교육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학습 상태를 통해 나의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의 상황도 여과 없이 보인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잘 적응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분명 그렇지 있다. 디지털 교육 앞에서 개인의 역량 요소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역량’과 ‘방식’은 현재 도서관 현장에서도 중요한 화두다. 일례로 전자책 서비스, 온라인 포럼 등 다양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무엇을’ 실험하고 ‘무엇을’ 파악하며,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일 것인가.** 일을 헤쳐 나가기 급급한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배움’과 ‘생각’이 동반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경우 조직 그리고 그 도서관이 속한 지역, 관여자 등에 대학 맥락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조차 이야기와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환을 이뤄내는 가능성이자 근간이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전환의 시기, 도서관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을 토대로 내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레벨의 성과에서 나아가 다양한 측면의 세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윤정환 자성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실제 우리 현장의 이야기라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매몰되어선 안 된다. 그 바깥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에 오지 않는 절대다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서관 본류의 역할이 커뮤니티와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실제 우리 삶속에서 채 못 보고 지나쳤던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방법 중 하나로 **내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차후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근로자의 여건 사서들의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 바깥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등 무궁무진하다.

강영아 성북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도서관은 지역과의 관계를 잇는 단순 매개자 또는 일방적인 제공자 역할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생산자의 역할을 확장하며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맞춘 피상적인 역할 너머 도서관이 지역의 일상성과 더 면밀하게 맞닿을 수 있는 연결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슈를 생성해 담론을 만들고, 다시 정보를 재가공해 관계를 만들려면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다. 공동의 목소리로 위기를 돌파해내는 추동력이 필요한 때다.

김지혜 지금 현재 오가는 이야기들에 대해 더 많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고루한 담론보다는 **현장 그리고 일상에서 부딪히며 실험한 것들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더 많아져야 한다.** 사서들은 전해 들은 ‘지식’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소리 내 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내 일상 속의 도서관, 내 삶의 도서관,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주변, 곁을 돌아보고
영향을 주고받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

박현경 도서관이 삶과 연결하기 위해선 내 곁의 주변, 마을, 지역 등의 이야기를 수 있는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아카이빙에 관해 당장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다. 인접 도서관 등 커뮤니티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대할 방안이 광역 단위의 차원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강영아 바꿔 생각하면, 너무 많은 지역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변별성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져야 한다. 기존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기 어렵다면, 나의 경험과 체감을 토대로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새롭게 환기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성북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마을in수다’도 주제나 논의를 더 섬세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마을 곳곳의 디테일한 면을 발굴해나가는 작업이 이뤄져야 개별성이 생길 것이다.



박현경 비슷한 담론들이 생성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 좀처럼 공유되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이다. 상황을 나누고, 노하우를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는 환영이다.

윤정환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사서 각자에겐 많은 정보가 있고, 그것을 잘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등에 대해선 잘 감지하지 못한다. 과거 시도했던 다양한 방식들을 찬찬히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서관의 궁극적 역할과 사명감이 무색하게 관련 유사매체가 너무 많고, 흐르는 이야기도 놓치기 일쑤다. 각각의 일상이 만날 수 있는 과정이 공유된다면, 그 방법이 비록 파편적일지라도 실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일요일 오전, 바쁜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 일상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공동의 목소리를 만드는 힘이 이러한 작은 모임을 통해 쌓여가리라 기대한다. 후속 온라인모임은 현장의 사서들이 모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대담2

다시, ‘성장하는 유기체’를 생각하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전문가 온라인 대담 2차

일시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저녁 20시~22시
 장소 온라인 줌(Zoom) 미팅
 대담 김은숙(파주중앙도서관), 송인노(마포중앙도서관), 이수희(강남구립정다운도서관),
 육지혜(성북구립도서관기획팀)
 진행 도서관총서 연구진

도서관총서 연구진 서울과 경기 등 다양한 자치구의 현장 사서들이 모였다. 도서관의 현재를 공유 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변화를 겪는 도서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도서관, 다양한 도서관의 일상성을 얘기해 달라.

“변화 속에서
 ‘바뀌지 않는, 정체된 것’에 더 고민해야”

송인노 코로나 이후 이용자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해온 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한이 생겼다. 여러모로 도서관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사서들이 업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다른 도서관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임시 휴·개관을 반복하면서 (재)개관의 기준 역시 모호해졌다. 도서관의 주체인 사서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니, 이용자들을 설득 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변화와 혼란을 겪는 와중에 더 안타까운 현실은 정작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변함없는’ 데에 있지 않을까.** 도서 대출이 여전히 도

서관 서비스를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준 가능성이라면 이러한 위기 속에 도서관 역할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신호들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수용하며 실행으로 이어지는 힘은 없다. 코로나 이전에 재난 등 난관에 대비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있었는가. 함께 고민을 헤치고 만들어 갈 노력을 해왔는가. 여러 질문을 해봐도 답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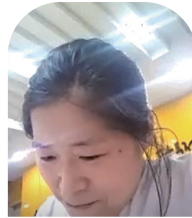
“변화에 급급한 대응보다는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더 중요해”

육지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라는 점은 특히 공감한다. 비대면 서비스 시행이 늘면서 무조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했다면, 이제는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볼 때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과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뿐 아니라, 도서관 사서나 직원들의 안전도 담보되어야 한다. 당장 올해에 이뤄져야 할 도서관 일정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해치우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외부에서 느끼기에 다소 느릴지라도, 단계를 갖춰 제대로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며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지닌 힘도 새삼 느낀다. 도서관의 일상성이라 함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여유이고, 또 공간에 닿고자 하는 그리움일 테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의 느낌을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현재의 숙제가 아닌 장기적인 고민으로 담겨야 할 때다.**

이수희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에 앞서 **사서들이 먼저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서와 이용자가 동시에 겪는 낯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도서관의 사례를 수집하며, 이곳의 환경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비대면 콘텐츠를 시도해보는 와중에 있다.

“도서관이 보다 주체적인 역할 했어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 돼”

김은숙 3월부터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사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해야 할 업무 요청도 동시에 받아온 상황이다. 공공시설인 만큼 행정적 명령과 시민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고 대응하느라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왜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앞으로도 도서관이 성찰해야 할 몫이다.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재난이 계속 발생할 경우, 도서관은 시민의 가장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동시에 도서관에게 크나큰 자산이었던 ‘공간’을 어떻게 지속하며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요구와 인식을 보다 기민하게 읽고, 한 발 먼저 행동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이미 사서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하고 구현하는 데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도서관이 필수적인 기관임을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도서관이 여러모로 변화를 체감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도서관의 내일, 새로운 표준(뉴노멀)등 다른 형태가 될 도서관의 모습은 어떨까. 예상 가능한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 달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이수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역시 전자 자료에 대한 요구와 실질적인 이용량의 급증세다. 온라인 자료를 접하는 가능성과 기회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도서관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실현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도서관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전자매체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고, 또 그 필요 근거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지금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안착하는 데 있어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지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이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육지혜 성북은 ‘변화하는 마을과 도서관’으로 향하는 도정에 있다고 본다. 기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게 하나의 목표이기도 했다. 이제는 정량화된 평가에서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끊임없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미래를 묻는 일은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면과 비대면 진행 방식이 어느 정도 조화롭게 발맞춰져야 한다. 일례로 성북구 곳곳의 도서관 사서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모여 유기적인 컬렉션을 만드는 것에 고민한다. ‘컬렉션 게시판’을 활용해 작업하면 더 수월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오프라인 컬렉션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성이 지닌 가치를 잃지 않으며,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

다. 변화하는 마을과 도서관으로 향하는 여정에 주민과 마을이 함께하도록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강력한 상징성,
공간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야”

송인노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건물, 열람실, 자료실... 이 모든 도서관의 ‘공간’이 지닌 상징성은 곧 도서관의 강점이다. 이 견고했던 무기는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강력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서관이 그나마 활기를 찾았던 7월로 돌아가 보자. 물론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긴 했지만, 소규모의 대면 프로그램도 있었고, 사람들도 왕왕 도서관을 찾았다. 그 짧은 시간 확인했던 건 바로 일상의 리듬이었다. 코로나라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단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도서관이 충분히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관리나 방역 차원의 책무에서부터 시작해 도서관이 시민의 힘을 확장하고 또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 이제 ‘공간’이란 무기가 ‘사람’ 즉 ‘사서’로 변모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시민과 도모하며
민주주의의 근간 만들 수 있어”

김은숙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위협 속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도서관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더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 너머 도서관이 주는

심리적이고 긍정적인 위안은 중요하다. 뉴노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구보다 ‘새로운 표준’에 닿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무심코 놓치는 것들에 대한 섬세한 시선이 필요하다. 지식플랫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은 저마다 다르고 또 중요하다. **시민의 경우, 도서관의 우려와는 무색하게 그들은 이미 충분히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과 시민이 함께 도모하고, 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건강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아가는 게 도서관의 이상적인 내일이지 않을까.

도서관총서 연구진 현장에서의 경험과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사서로서의 나, 내 곁의 사람들, 마을과 지역, 나아가 도서관계까지 어떤 노력과 변화 그리고 전환이 필요할까. 가장 많이 논해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제는 서비스나 연대 범위 역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도서관을 다닌다’는 감각
일상에서 잃지 않게끔 힘써야”

육지혜 현재 ‘마을공론장’이란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사서들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 사서들은 도서관의 현장성이 약화되면서 함께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변화의 급물살 속에서 사서의 역할인 ‘정보전문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의 가치와 생존 방식을 ‘증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도서관의 공간적 힘은 대단하다. 가령 일상에서 ‘도서관을 다닌다’는 감각이 느슨해져서 아쉽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린다. 도서관이 지닌 물성,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플랫폼이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문을 연 도서관’의 인식은 ‘내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관심과 애정의 소산이다. **사소한 감각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환경의 변화는 사서에게 새로운 과제이자 도전**

이 되었다. 도서관의 특별함을 발굴하고,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며, 이웃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도서관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김은숙 사서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말에 동감한다. 동시에 사서들이 애쓰고 변화하는 만큼, 외부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바꾸게 하는 것 역시 사서의 몫이다. 한 예로 ‘도서관 문 닫아도 바빠요’라는 콘텐츠처럼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변화를 한껏 드러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본다. 그에 맞춰 공감하는 반응이 오기도 한다. 변화와 전환을 위해 가는 그 과정까지도 자연스럽게 교감이 되길 바란다.

“새로운 변화에 맞춘 새로운 연대 모색되어야”

이수희 코로나로 단절된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얘기해본 적이 있는가?’ 자문해 봐도 일부 서비스로만 이용자를 대면하고 그치는 게 현실이다. 중요한 건 도서관 자체에서 고민하고 해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학교도서관이나 다른 많은 기관들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계 방식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금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들이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며 많은 걸 배우고 있지 않나. 프로그램 단위로만 평가되고 성과를 만드는 압박 속에서 사서가 모든 걸 완벽하게 ‘멀티플레이’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유연해지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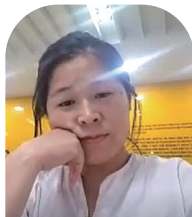
“경쟁과 성과 지향에서 벗어나 도서관 바깥에서 사람들과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송인노 외부 ‘인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하지만 재차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전통적인 도서관이 지닌 무게와 중심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해소되어야, 사서들은 차후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기회와 강점에 대해 이야기되어야 한다. 즉 도서관이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을 잇게 해주는 퍼펙트한 역할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성북이 기존에 잘 해온 마을공론장이 좋은 선례가 되리라 본다. 도서관이 구축해 온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보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간의 협업, 지자체간의 경계 역시 더 허물어지면 좋겠다. 사서들도 서서히 바깥으로 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전환하려면 도서관의 ‘무게 중심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해야 가능하다. **임시방편에 급급한 현재의 대체서비스가 미래의 도서관을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에 맞물려 드러난 도서관의 적나라한 문제점을 직시할 기회라도 좋다. 수치나 결과에 몰두하기보다 최소한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자.

도서관총서 연구진 내 삶의 도서관,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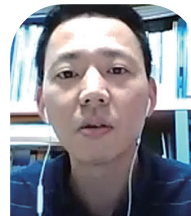
“사서와 시민이 만나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계기 계속 되어야”

김은숙 최근 도서관의 사서들과 학예사가 함께 모여 지역의 기록물을 모으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했다. 결과물을 모아 도서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도서관에 평소 오지 않았을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이는 걸 봤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도서관에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록물이 재탄생하게 된 데에는 사서의 역할이 컸다. **중요한 점은 사서 역시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에 포개짐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서가 이런 기회를 통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더라. 나 역시 엄연한 ‘조직’ 속에 있지만,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작은 보람과 사서의 사명을 느낀다.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연유가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임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서,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돼
일상을 나누는 친숙한 곳이어야”

이수희 도서관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어야 함에 공감한다.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집에 계신 분이 많은데, 책을 통해서든 또한 공간을 통해서든 그들이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을 탈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서란 책도 물론 좋아하지만,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직이지만, 사람들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 보이지 않는 연대의 깊이가 생긴다. **다양한 세대가 보다 더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사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친숙한 곳이 되길 바란다.**

“삶의 고민이 이어지는 곳이라면,
도서관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함께해”

송인노 도서관이 사람과 사람 그 어딘가 존재할 수 있다면 도서관은 분명 사람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찾게 되는 곳이 도서관이 될 수 있다. 삶의 문제란 거창한 게 아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까지 함께 답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원뿐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어떤 그룹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해결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을 거치면 어느 누구에게도 연결될 수도 있다! **도서관의 존재만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이에 대해 고민하는 사서들의 삶이 함께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한다.**

“도전하는 곳, 그리고 도전의 실패까지도 인정되는 곳
내 삶을 바꾸는 도서관 될 수 있어”

육지혜 도서관이 변화를 향해 나아갈 때 수반되는 무수한 시도들, 경험과 노력들, 이 다양한 도전에는 ‘실패’가 따르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의 과정까지도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기관’일지언정 나의 일터인 도서관이 결국 이상적



인 것을 담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서관에 온 이후 스스로 많이 변화했다. 가령 내가 ‘공공도서관’이란 곳에 머물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 경험들,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내게 성장의 동력이 된다. 최근 봉사에 참여했던 대학생들과의 북큐레이션 작업이 기억에 남는다. 어린이도서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는데, 그 제안이 내게 중요한 환기가 되었다. 나 역시 사서로서 늘 해왔던 고민들을 정작 왜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을까 되물어본다. 이런 작은 노력과 시도가 결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만남과 교류, 소통과 작업이 결국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함께 배우며, 결국 ‘성장하는 유기체’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서관총서 연구진 평일 늦은 저녁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 도서관 일상과 현장의 고민들이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공동의 논의의 장으로 활발히 나오고, 지지받길 기대해 본다.



책과 연구를 통해 리터러시 literacy를 읽_____다

“도서관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두 번째 온라인 대담에서

두 번의 대담에서 집필진이 더 파고들고자 했던 개념은 바로 ‘리터러시’였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라는 계속되는 물음 속에 리터러시는 이미 성큼 우리 곁으로 왔기 때문이다. 총서 작성 초기부터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책 (『유투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김성우×엄기호)이 작은 이야기의 장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온라인대담에서 언급된 “도서관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도서관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뭉’이다.

다시, 화두가 되는 리터러시는 도서관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가. 관련 책과 연구를 읽고, 도서관에서 앞으로 이어져야 할 많은 논의에 작은 제언을 던지고자 한다.

도서

『유투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김성우×엄기호, 따비, 2020.

문화연구자 엄기호와 응용언어학자 김성우의 리터러시에 대한 대담이다. 리터러시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야기는 읽기와 쓰기가 만들어낸 역사적 변화, 현재 닥친 혐오와 소통의 위기, 멀티미디어 시대, 좋은 삶에 복무하는 리터러시까지 나아간다.



연구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송경진, 차미경, 2014)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소고·재정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중심으로**』(오의경, 2013)

연구목적

- 실제 연구와 서비스에서 사용된 용례의 양상
- 공공도서관 서비스 현장에서 모두 적용가능한 새로운 리터러시 개념 제안

선행연구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의 필요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와 플랫폼을 익숙하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으로 정보를 선택, 이용하며, 동료와 함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정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 지성에 기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핵심 능력이다. (오의경, 393쪽)

어원(개념)과 이론

- 역사/학문 분야별 파생 리터러시 다양함. 각 기준과 관점에 따라 중첩·교차되는 다중적 개념
- 1970년대 미·영국에서 공공의 이슈로 부각
- 기능적 리터러시: 리터러시 실천literacy practice의 측면, 고유의 ‘읽고 쓰는 능력’
- 뉴 리터러시: 사회문화적 관점 견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서 ‘리터러시’ 강조 (관련 학자들 :Street(1984), Heath(1983), Gee(1989), Barton과 Hamilton(1998)

〈표 3〉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기존의 정보리터러시 vs.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교육내용	기존의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	새로운 정보리터러시 교육 세부내용
정보요구, 필요성 인지	①정보 요구의 파악(이해) 정의, 표현 ②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재평가	①사회적 맥락과 주변 상황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 ②정보의 필요성을 인지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이해	①정보원의 목적, 범위, 적합성 이해 ②다양한 정보원의 이용	①네트워크 연결성에 의하여 확장된 정보원과 정보원 접근 방법 이해(오프라인, 온라인, SNS 에 흩어져 있는 정보 원리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 숙지) ②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 이해
정보탐색 전략 수립과 탐색 수행	①필요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과 도구 선택 ②탐색 전략 구축, 실행 ③정보의 입수 ④정보 탐색을 위한 정보 기술, 도구, 수집 방법의 최신성 유지	①탐색 도구 탐색을 위한 플랫폼의 선택 전략, 사용 능력 함양과 사용 능력 함양에 대한 이해 ②미디어 융합 환경 이해 ③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이해 ④ 미디어 에 따른 탐색 전략 수립과 탐색 수행
정부의 분석 및 적합성 평가	①정보독해 ②정보요약 ③정보의 이용 가능성과 목적성 및 적절성 평가	① 정보 필터링 능력 함양 ②정보의 권위, 신뢰성, 정확성 판단을 통한 평가
정보의 체계적 조직, 활용, 공유, 종합 능력	①정보의 조직 ②정보를 기존 지식 체계와 비교 통합 ③결과물 생산 ④정보 표현, 전달	① 협력과 공유 에 의한 정보 생산 ② 집단지성 을 활용한 정보 생산 참여 ③정보의 창조자로서의 책임 의식 함양 ④정보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작성 능력 함양
정보 활용에 수반 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인지와 대응 능력	①인용 표절 저작권 ②정보 이용시의 에티켓 ③합법적 정보 수집과 배포	①인용/표절 이해 ②저작권 이해와 실천 ③연구윤리 이해와 실천 ④사이버리터러시 이해와 실천

출처 : 오의경, 396쪽(강조, 인용자)

문헌정보학 분야 리터러시 연구 추이

- 2006년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 폭발적 증가 원인
①미국 ‘성인 리터러시’ 이슈 부상(SRI 읽고 쓰기 능력에 미달한 성인대상의 정부지원 프로그램. 2002~)
②영국 ‘삶의 기술Skills for Life’(2001~) 등 국가차원의 캠페인과 자금지원 확대 영향
-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실생활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의 학습 요구-생애학습 필요성 부각

공공도서관 리터러시 서비스

- 초기 리터러시(Early literacy), 가족 리터러시(Family literacy), 성인 리터러시(Adult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트랜스 리터러시(Trans literacy) - ‘Libraries for literacy, 퀴즈 분류
-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 1. 리터러시 개념의 혼재 2. 서비스 유형의 정형화 문제점 드러남. 즉 이용자는 물론 사서들조차 리터러시의 개념이나 리터러시 서비스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있음.

결론 및 제언

1. 리터러시 개념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 결합 가능한 보편적인 정의여야 함.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도권 교육 밖의 생애교육에 잇닿아 있어, 즉 생애교육의 목적은 직업적 성취나 학습능력의 고양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의 리터러시는 다양한 파생 리터러시 개념을 수용해야 함.
2. 사례조사 틀로 분류한 퀴즈랜드주립도서관 분류 중 초기, 성인,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로 재분류함.
3. 다양한 학제적 연구 통해 ‘리터러시’ 적절한 우리말 표현 고안되어야 함.

리터러시, 그 다양한 가능성에서 ‘도서관’의 ‘몫’을 (다시) 생각하다

책, 연구, 세미나 등에서 읽는 ‘리터러시’의 동향과 개념은 복잡다단하다. 책의 주요한 키워드와 그 개념들을 먼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문해력’, ‘문식력’, 일상생활과 소통으로서의 말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귀’ 등 ‘디지털 리터러시’가 담고 있는 뜻은 무궁무진하다. 리터러시라는 세상과 만나기 전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그래야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글자, 단어, 개념에 대한 이해 너머, 타자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터러시가 삶의 문제를 넘어 다름의 문제’(170쪽)를 다룬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책의 자문에서처럼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식을 엮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165쪽) 또는 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취하고, **그 말들을 매개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가**(260쪽)에 대한 질문과도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가에 대한 이해(183쪽)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의 삶의 리터러시는 가능한가? —‘삶의 변화를 향한’ ‘다름’의 리터러시로서의 역할

리터러시를 위한 ‘공공성’(202쪽)에 대해 얘기해보자. 책에서는 본격적인 읽기/쓰기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133쪽)하며, 리터러시의 척도가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문화적 공론장, 제도정치적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역량’(133-134쪽)에 있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터러시는 '디지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리터러시' 타이틀을 내걸고 진행되는 여타 프로그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기술적 활용에 강화를 둔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삶과 일상의 차원으로 직면했을 때 리터러시의 맥락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즉 **도서관이 탐구하는 리터러시는 삶의 가치를 담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일례로 '국민 삶의 지표'와 연결해보는 등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구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는 전달되며, **그 고민은 오롯이 '현장'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른 바 연구와 현장은 리터러시로 표방하는 '글의 세계'와 말귀로 설명된 '말의 세계'의 또 다른 함의이다. 이때 연구와 현장의 이치가 부응하고 그 시너지가 함께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낯설고 또 너무나도 익숙한 '리터러시'를 내재화(internalization, 비고츠키, 164쪽)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합의를 위해 그 경험과 고민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리터러시가 좋은 삶을 향한 이해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뉴 리터러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서 리터러시'를 강조한다. 송경진·차미경의 연구는 퀴즈의 리터러시 분류를 실정에 맞게 재정의·재분류해 수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여전히 개념적 틀에서 천착되는 한계가 있다. 이보다 연구에서 언급한 ①일상적인 삶에서의 지적 호기심 충족 ②생활에서 겪는 문제 해결 ③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삶의 질과의 연결은 '생애교육'의 틀로만 규정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리터러시로서 보편적인 정의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제도권 교육 밖의 생애교육에 잇닿아 있다"는 걸 너머 "제도권 교육 안팎의 생애교육은 물론, 정보와 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모두의 리터러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하고, **사서와 시민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리터러시로 향하기— 사서, 교육, 변화

오의경 연구 표에서의 변화 양상을 지금 다시, 읽어 보는 일은 중요하다. 즉 '삶의 리터러시'로 나아가기 전 도서관의 변화를 읽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①정보 요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②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기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속성을 이해하며, ③정보탐색의 수립과 탐색을 '미디어'로 확장하고, ④결과물 생산에 협력과 집단지성을 도모하며, ⑤인용과 표절 및 저작권의 윤리 문제가 "실천"에 방점이 찍히는 점은 '사서의 교육' 측면에서 재고할 만하다. 즉 **사서들이 정보전문가로서의 주체적인 입지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마을의 지형을 함께 읽고, 지역의 변화를 함께 겪고자 내딛는 그 시도가 삶의 리터러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 글은 2020년 10월 12일 오전 9시-12시에 진행된 <삶을 향한 리터러시 스터디>(이진우, 김주영, 조다희)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터러시가 삶의 문제를 넘어 다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식을 엮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또는 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취하고,
그 말들을 매개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상응하기 때문이다.

4

**도서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의
‘마을in수다’를
통해 본 가능성



마을민주주의는 도서관에서 자란다

공론 公論 : 여럿이 함께 의논하다

공론은 여럿이 함께 무언가를 의논하면서
서로 생각이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질문과 고민을 확인하고 나의 질문과 고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일상적인 경험과 공간을 바탕으로 반복되고 변주되면서
마을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공론장

마을에서 도서관은 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과 연결해
동아리 활동, 강좌나 전시, 체험행사, 컬렉션을 구성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책읽기와 도서관 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면서
생각, 관계, 삶의 방식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마을의 정보공간인 도서관에서 열리는 공론장은 일상에서
또는 마을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도서관은 공론과 함께 개개인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고 제공하여 결론보다는
여럿이 의논하는 과정,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공론장에서 얻은 새로운 생각과 질문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이유가 되고
이것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마을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6쪽)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도서관의 일상성

‘도서관’은 그 자체로 우리 삶 속에 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
에 갈 수 없다는 건 곧 개인의 일상 한 조각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이다.

— 총서 2부 인터뷰 중

코로나19 이전 공공도서관은 마치 공기처럼 늘 있는 곳, 내 삶과 함께 하는 곳
이라 여겨져 그 중요성과 소중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도서관
은 갑작스러운 휴관·재개관 등의 임시운영을 반복하면서 ‘**도서관이 과연 일상
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공도서관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에 공공도서관들이 제
공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담는 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도서관의 내부적인
점검과 사회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춘 단기적인 대응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곧 공공성 실현”으로 이어져,
사회적 가치 실천과 마을민주주의의 출발

박광운 국회의원(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안’(사회적 가치법)은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이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간 효율과 성장 중심 가속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 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존중이나, 환경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성찰해보자는 것이다.

법안이 발의하기 전 진행된 한 토론회(<공공기관, 이제 사회적 책임에 나설 때입니다. 2017.09.27(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배(전성북구청장, 현국회의원)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과제와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성북구의 사례를 들어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논한 바 있다.

그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있어 민주주의의 실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실천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주민이 중심이 된 의사결정 과정과 협치 기반을 토대로, 주민 주체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주민조직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민주주의’의 확산은 시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우리 동네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언에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이 많은 공공기관이 솔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민간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수용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성북구는 마을의 사람·기관·단체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며 마을 현안 공유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함으로써 도서관과 마을이 함께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변함없이 꿈꾸는 것

“우리가 꿈꾸는 마을은
“만나다, 통하다, 꿈꾸다”로 정리하고 싶어요.
마을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하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24쪽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코로나19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은 무엇인지
함께 발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0 총서 2부 인터뷰 중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라는 질문의 마지막 여정인 4부에서는 성북구립도서관이 꾸준히 해온 마을in수다의 실천적인 행보를 읽고, 그 가능성을 통해 ‘삶의 전환’으로 가까이 가닿고자 한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재난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희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다.

**보다 확신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을 향한 만남과, 만남을 통한 일상의 발굴,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식과 실천을 담보한 공론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시민의 힘을 키우고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연대의 플랫폼이다.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도서관의 발자취를 정리해 마을in수다의 발전 단계를 크게 생성기(2016~2017)-진행기(2018~2019)-변화기(2020~)로 읽고, 개인과 공동체가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나아가 도서관은 어떤 역할로 ‘삶의 전환’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人]수다 : 생지기 2016-2017

“생각보다 더 막막했던 시작!”

도서관 안팎에서
모으고 만들다,
공론의 시작

2016년 4월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 민선 6기의 주민자치역량으로 내세운 ‘생활, 골목, 마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핵심의제에 따라 시민의 힘을 키우는 공론장을 도서관에서 시도해보고자 ‘마을in[人]수다’(이하 마수다)란 타이틀을 만든다. 초기 마수다는 종암동새날도서관과 청수도서관 2개관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사마담’◆을 중심으로 주제와 관련된 정보서비스가 진행되었다.

◆ 사·마·담이란 ‘사서의 마음’을 담은 서재’의 줄임말로 도서관의 수많은 장서 중 시기와 주제를 고려하여 구민이 공감해할 만한 장서를 컬렉션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5-2017년에 조직해 활동한 사서그룹

마을 IN(人) 수다진행	사전 토론 진행	⇒	사·마·담 모임	⇒	컬렉션 전시
	- 주제 선정 - 사회자, 레퍼런스 위원, 주제 관련 마을 단체 등 행사 구성에 대한 논의 - 행사진행사항 업로드 (홈페이지, 업로드) 진행 : 해당 도서관		- 주제 관련 정보 수집 및 컬렉션 제작 ※ 사·마·담과 도서관이 추천한 도서를 도서관 내 전시 (전시도서인 경우, 653/740태그에 사마담 관련 검색어 추가) 진행: 사·마·담		- 온/오프라인 전시 기획 및 설치 ※ 마을인수다 통일 게시판 ※ 타 사업장 현황 및 이용자 참여공간 ○ 사마담 추천 도서 진행: 민간단체

출처 : 2016 마을in수다 운영계획안

도서관은 위와 같은 진행 방식을 통해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활동은 2016년 7월부터 구립도서관 6개관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작은도서관으로 확대되었다. 마을 누구나 참여하는 마을 토론의 장에 도서관이 공간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갈등 해소 방안’과 ‘해결 대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고 소통과 관계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들을 수 있어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간의 다양한 삶과 소통할 수 있는 ‘주민포럼’의 장이 정례화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2016년 종암동새날도서관 마을in수다 참여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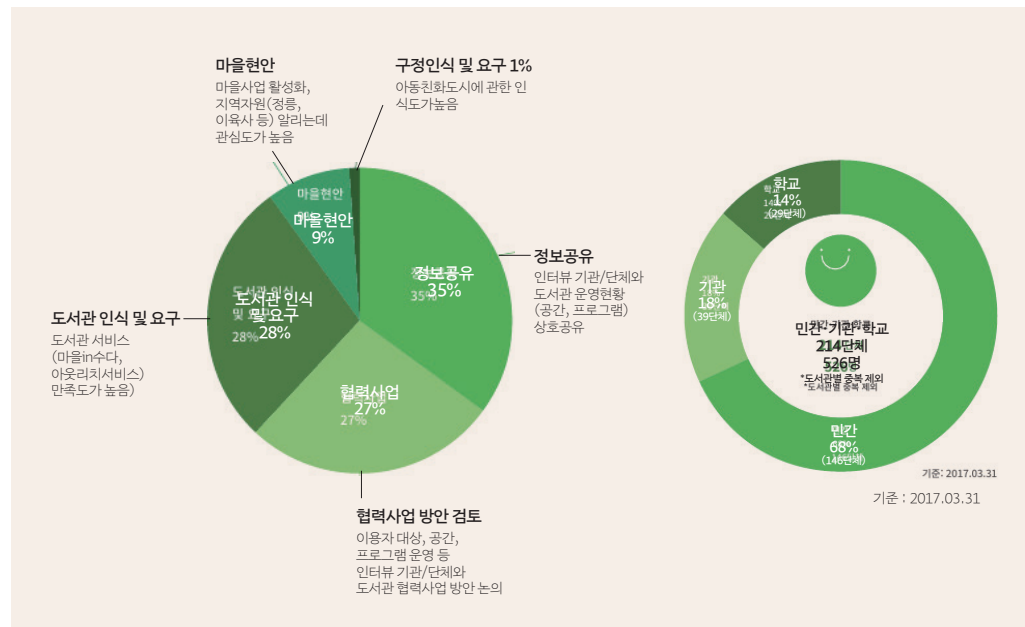


2016 마을in수다 진행 모습

하나의 실험으로 시작한 마수다는 도서관과 참여자들에게 ‘마을공론장’이 도서관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확신을 주었다. 평가를 통해 공론장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 현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 경험을 통해 성북구립도서관은 더 확장된 공론장 형태의 마수다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알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2017년 1월부터 180일 동안 성북구립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 개인, 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마을 정보와 그들이 가진 고민을 수집했다(214개 단체/526명). ‘마을 안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단체들이 **마을 현안에 대해 알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공공도서관이 중심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출처 : 2017 도서관동행원탁 자료집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솔루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찾아주는 역할이 도서관 사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문화예술기획자 인터뷰 중에서)

“동네가 낙후되어 있고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아이가 크면서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많이들 떠나요. 이사 갈 생각을 하기보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나 마을을 위한 일이라니 힘을 보태 보겠습니다.” (지역 민간단체 인터뷰 중에서)

“당장 도서관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기 보다는 **조금씩 변화하고 나아지는 과정에 주민들과 마을단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변화가 큰 의미가 될 거 같아요.**” (정릉도서관 인터뷰 중에서)

“**마을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동아리 행복두레 간담회에서)

[출처 : 2017 도서관동행원탁 자료집]

2017년 마수다는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고민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사회 흐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떠올리는 문제와 질문을 찾아 토론하고 변화와 실천방법을 찾는 과정이었다. 때론 실패와 착오를 거듭했지만,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주체적인 학습과 사유 그리고 공공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전환하는 틀을 다지고,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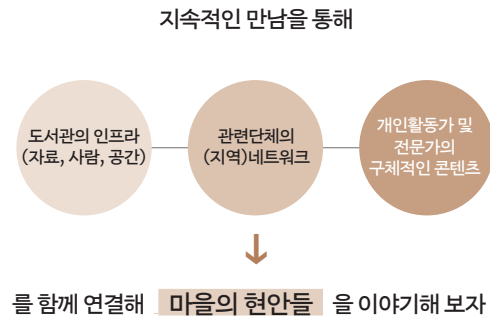
이를 위해 도서관들은 마을인터뷰를 통해 만난 개인, 기관, 단체들과 도서관별 일상적인 ‘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리의 고민과 질문, 문제가 뭘까’를 먼저 서로에게 묻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에서 나온 주제와 현안들과 관련해서 도서관은 관련 책과 정보를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마을의 현안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문가 강좌, 체험행사, 일상적인 주제 북큐레이션 등을 진행했다.

마수다는 도서관 내 자료실에서 이루어졌다. 조용한 서가 곳곳에서 마을의 다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도서관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나누는 곳으로 전환되었다. 도서관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새롭게 각인되는 시기였다.

성북구립도서관의 마수다를 담당했던 사서를 만나 초기 형성 과정을 돌아봤다.

“모든 담당 사서들이 그랬겠지만, 도서관에서 함께 만들고 이해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에서 의제를 합의해나가는 과정도 지난했구요. 물론 초창기에 거쳐야 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더 막막했고, 과연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싶은 불확신이 가득했지만, 주민들의 반응과 의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바깥에서 도서관 중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는 상황을 보는 것도 신기했구요.”

초창기 마수다는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에 겪는 담당자로서의 고민과 당위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 차차 해소되고 동력을 얻어나간다. 마지막으로 마수다가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마을 주민들이 들려준 얘기가 떠오릅니다. 사적인 줄 알았던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만남과 공론을 통해 풀릴 때, 그들이 삶의 보람을 얻고, 또 사서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믿음’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삶의 변화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도서관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스스로없이 모이고 참여하는 움직임만으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을공론장’은 도서관과 마을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토대로 쌓인 신뢰를 통해 ‘마을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추후 마수다의 운영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기반네트워크 및 마을in수다 운영 모습
상단: 자료실 내 마을in수다 운영 모습, 하단: (좌)도서관네트워크 모임 모습.(우)의제 선정 투표 진행모습

마수다의 시작을 돌아보며, ‘공론장이 왜 도서관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계속했다. 마수다 등 도서관기반네트워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주민은 우리에게 의외로 명쾌한 답변을 해주었다.

내가 찾아갈 때, 포용하고 환대해주는 곳...
공공도서관이기에 가능해

“도서관은 제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책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무한한 레퍼런스 영역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지적인 자극을 계속 받을 수 있죠. 특히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다’는 점은 제 삶과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뿐 아니라, 동네 어르신, 어린이들, 예술가, 전업주부, 그리고 작가 등 그들이 느낀 애환과 일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특별합니다. 물론 지역에는 사람들을 잇고 또 돕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어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발 디딜 수 있을까요? 어떤 곳에 가야 이 모든 궁금증과 의문을 풀 수 있을까요? 그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마수다라는 장이 그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이야깃거리가 모일 때 서로 맞이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는 자동적으로 조성되는 것이죠.”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人]수다 : 진행기 2018-2019

“도서관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지속 가능해야 한다”
한계와 가능성,
마을in수다의 과제를 묻다

약 2년간의 마수다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마을공론장’이라는 마수다의 사업 특성상 운영횟수와 참여자수와 같은 정량적 평가가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일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활동에서 ‘사서가 마을활동가인가?’라는 외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사서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가치’ 문제도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수다를 지속 가능 하게 하는 동력을 내부로부터 찾는 일이었다. 즉 도서관의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실행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주요 쟁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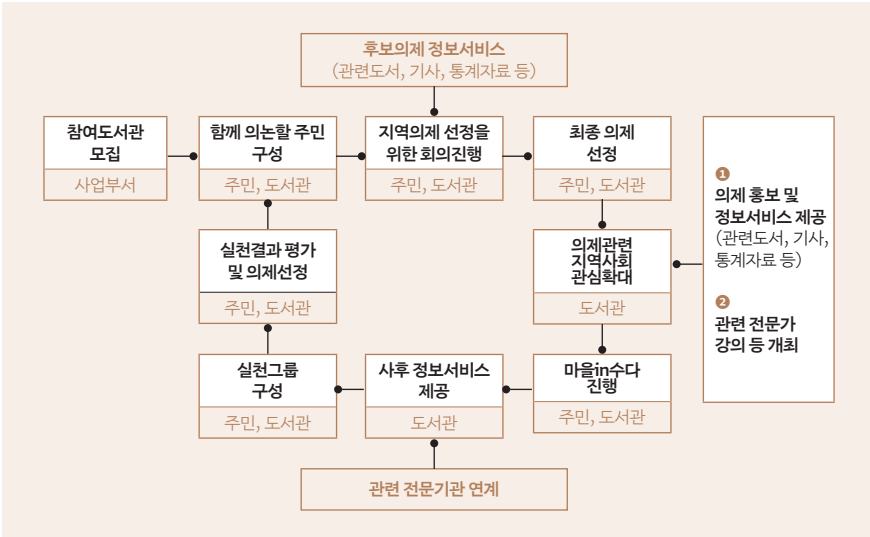
이러한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성북구는 민선 7기를 맞는다. 이승로 구청장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정책 기조에 따라 ‘마수다 운영을 통해 의제와 관련한 해결책과 실천 방안’을 실행하는 ‘실천그룹 조직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서관기반네트워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및 관련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의제를 지역 사회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과정은 동일하나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과정과 성과지표를 발전시켰다.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발전기(2019) 사업지표

항목	사업지표
참여화	마을in수다(5개관)
조직화	도서관 마을네트워크, 실천그룹 구성, 특별 강좌운영
실천화	지역 의제 설문조사, 주민참여 프로그램(활동) 기획·운영, 동 자치회 참여 및 정책제안

참여화, 조직화, 실천화로 나눈 항목 중 ‘조직화’ 과정은 실천그룹 구성을 목표로 한다. 그 일환으로 마을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회 참여’와 ‘주민참여예산’ 등의 정책 제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실천그룹을 바탕으로 마수다에서 발굴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2019년 진행방식



출처 : 2019 마을in수다 운영계획안

실천그룹의 조직화는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도서관 기반 협력 사업들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부 주체와 기관들과의 협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마을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생성기에 사서가 느낀 막막함은 진행기에도 이어졌다.

“여전히 ‘사서’ 개인의 책무와 정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지속을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도 사람을 소모시키는 점은 분명 힘든 일이니까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라는 질문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마수다를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또 담당해온 사서에게 물었다.

“마을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나누는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마을 이야기의 출발은 곧 나의 이야기로부터 생기니까요. 올해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재난을 겪으며 기존 관계조차 느슨해진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듯 네트워크에 새로운 젊은 층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이야기도 변화해나가는 건 마을 의제 자체를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개인의 힘으로 맞닿기보다는 기관과 기관의 협업도 더 중요해질 것 이고요. 마을과 지역의 관계 맺기를 도모하기 위해 판을 깔아주고, 사서가 곧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조력자가 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수고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 안에서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있고, **사서로서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나가는 여정이 마수다를 포함한 모든 네트워킹의 과제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네트워크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은 도서관과 도서관네트워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긴 시간 동안 성북구립도서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만났다.

“도서관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열린 장이 도서관의 문턱을 낮추는 다양한 계기들 중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공론장이 열리고 주제가 생기면 지역주민이 모이는 곳이 있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고, **주민들이 소소하게 하는 활동을 ‘실천’으로 잇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서’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을 통해 이뤄지는 점은 쉽지 않으나 서로 의지해 **원동력 삼고 나아간다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서관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참여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사서의 역할’이었다. 사서는 마을공론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서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마수다는 이처럼 사서의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율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보완해나가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수다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담당자들의 업무 또한 단절되지 않으려면 도서관 내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통해 개별 업무가 아닌 도서관 전체의 과제로 마수다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어야 한다.

생성기와 진행기의 반복되는 사서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의 마수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람이 ‘동력’이 되는 한계를 발견했다. 이러한 한계들은 앞으로 2020년 마수다의 변화기를 맞아 내부의 적절한 자원 분배를 통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도서관기반네트워크 및 마을in수다 운영 모습
상단: 도서관 앞 광장 번개발언대(자유헌발언대) (우)의제 관련 자료제공 / 하단: 실천그룹들이 만든 축제

아리랑도서관 2018 도서관기반마을네트워크

<광장4색(思索)>

‘마을과 함께 광장에 서다’

2017년 개관한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아리랑어린이도서관+아리랑도서관+아리랑시네센터’를 잇는 ‘아리랑광장’을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2017년 주민들의 ‘일상여가문화활성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및 시민 설문 조사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시도들을 거쳐 2018년에는 <광장4색(思索)>을 기획했다. 녹색연합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담은 생활의 광장’을 아리랑어린이도서관에서 ‘인권’을 매개로 활동하는 이야기학교 친구들과 ‘어린이 인권으로 나누는 평화의 광장’을 도서관 인근에 사는 마을 작가와 ‘문학을 통해 이웃을 만나는 문학의 광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각양각색의 장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부영이가족과 함께하는 야외도서관 캠프>인 ‘행동의 광장’을 진행했다. 아리랑도서관의 2018 도서관기반마을네트워크 <광장4색(思索)>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삶의 모습들을 실현하는 자리였다.

[출처 : 2018 광장4색(思索) 콜로키움 '마을과 함께 광장에 서다' 자료집, 1쪽]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人]수다 : 변화기 2020~

“다시, 만나고 다시, 힘을 얻어가려면” ‘변화’로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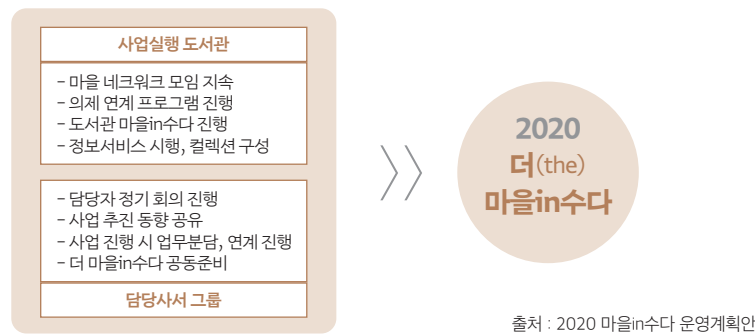
2016년부터 진행된 마수다는 생성기와 진행기를 거쳐 2020년 변화기에 이르렀다. 2020년 마을수다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로 변화할 지역의 일상을 면밀히 반영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 내부에서는 마수다 담당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마수다 총괄 사서의 말에 따르면 과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담당자간의 업무 공유가 없었던 만큼 담당자들은 회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를 통해 사업담당자로서의 어려움과 2020년 마수다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 나갔다.

“마수다를 진행하며 각 도서관의 담당자들이 느낀 가장 힘든 점은 담당자의 힘으로 마수다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담당자들 모두 마수다의 의미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지만, 누적된 업무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압박감은 상당했어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모든 도서관들이 마수다를 진행하는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남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의제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공론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담당사서들끼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안으로는 마을공론장과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사서공론장을 만들어 사서들의 성장과 내부 동력을 쌓고, 앞으로 진행될 마수다에 대해서는 ‘주제컬렉션’처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연계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가기로 했어요.”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변화기(2020) 운영구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의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수다 운영과 함께 정기적인 담당 사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도서관 속 메타공론장’을 만들어 내부적으로는 사업담당자들끼리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업의 일값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재배치 하고자하는 시도였다. 마수다 총괄 사서는 생성기와 진행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담당사서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추후 성북구립도서관의 마수다의 방향성과 가치를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변화기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또 다른 지점은 사업지표에 관한 것이다. 정량지표 외에 서술형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서술형지표 중 정보서비스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된 이유에 대해 총괄 사서는 이렇게 말했다.

“도서관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정보서비스’ 부분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미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참여 주체인 주민들이 더 잘하시고 계신 부분이라, 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서술형지표를 설계했지요. 이 또한 담당사서들에게는 또 다른 업무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변화기(2020) 정량지표(필수)

항목	사업지표
공론장	마을in수다
	관련모임 진행
	의제 발굴
네트워크	마을 네트워크 구성 : 지속 참여 네트워크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콘텐츠 제공
실천	실천 그룹 구성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변화기(2020) 서술형 지표(선택)

항목	사업지표
공론장	마을in수다
네트워크	마을 네트워크
정보서비스	정보문제 해결
	도서관 내부 자원 활용 정보서비스
	도서관 외부 자원 활용 정보서비스
실천	의제 발굴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서술형 지표는 위의 설명처럼 담당자가 작성 가능한 부분만 결과보고에 기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론장 항목의 마수다의 경우 담당자가 겪었던 인상 깊었던 일이나 의미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정보서비스 항목의 경우 사업 전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문제(질의)와 그에 따른 정보서비스가 있었는지 혹은 사업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보서비스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는지를 적는다. 그 외 도서관 자원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보서비스에 포함된 도서관 내 소장 자료 목록과 소장하지 않은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이와 같은 지표가 일정 기간 축적될 경우 정량적 평가로 담아내지 못하는 마을공론장과 도서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생생한 삶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성북구립도서관 마수다는 ‘더 마을in수다’를 준비하고 있다. ‘더 마을in수다’는 각 도서관에서 진행된 마수다를 하나로 연결하여, 확장된 ‘도서관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다. 마수다 총괄 사서의 말에 따르면 올해 ‘더 마을in수다’는 향후 마수다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1월에 성북구립도서관 책모꼬지에서 진행될 ‘더 마을in수다’는 앞으로의 변화하는 도서관, 마을공론장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도서관전문가와 마을공론장에 참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향후 마수다의 방향을 잡아나가 보려 해요. 이 자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의 마을공론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주체들을 도서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수다의 시도들은 마을공론장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고, 코로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서관별 마을in수다 운영 사례

“도서관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실현하는 마을in수다

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 #도서관네트워크 #천장산우화극장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나가는 도서관

2 종암동새날도서관

#물음표발굴단 #고민있수다 #세대 소통

세대 소통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서관

3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쓰레기 문제 해결 #쓰담쓰담 #마을학교 #청소년공간마련

주민의 힘과 지역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끊임없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도서관

4 정릉도서관

#마을플랫폼 #정릉동행즈 #일과 삶

지역과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마을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도서관

5 청수도서관

#마을이 키우는 아이 #반려견

마을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도서관

6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장위동에 산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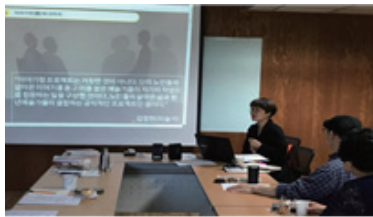
도서관을 통해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꿈꾸는 도서관

이어지는 '성북구립도서관 6개관 마을in수다 운영 사례'는 2017년 도서관기반마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내용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성북정보도서관은 2018년 성북정보도서관네트워크를 ‘히히(우연히, 넉넉히)살롱’이라 이름 짓고 활동을 확장해 나갔다. ‘히히살롱’은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각자의 관심주제와 마을의 현안 등을 공유한다. 이 회의를 바탕으로 마을in수다 주제가 결정된다. 도서관은 논의 주제에 대한 사전 학습과 토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히히살롱 운영 모습



2018 <슬기로운 노년생활> 사전강좌



의제 참여 게시판



주제 컬렉션

또한 도서관 내 천장산우화극장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으로 성북어린이미술관꿈자람이 개관하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성북정보도서관은 도서관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을과 도서관을 연결하고 주요 기관과 도서관 내 운영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만든다. 이렇게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과 도서관을 성장시켜 가고 있다. 성북정보의 진화를 보며 성북정보도서관장은 **도서관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실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도서관별 마을in수다 운영 사례 2

종암동새날도서관

#물음표발굴단 #고민있수다 #세대 소통

2017년 종암동새날도서관의 마을in수다는 일상의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행원탁회의@종암동은 ‘종암동을 기반으로 문화적 삶을 고민하는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네트워크’이다. 이와 함께 <물음표발굴단>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물음표발굴단>은 동행원탁회의@종암동의 물음표를 함께 찾아가는 그룹이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관계맺기를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물음들을 좋은 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서포터즈이다. 모집된 <물음표발굴단>은 도서관네트워크회의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한다. 논의된 주제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발굴하여 목록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마을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매개가 된다.



출처 : 2017년 종암동새날도서관 물음표발굴단 모집안내문

2017년 종암동새날도서관은 <당신은 종암동에서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위크숍에서 나온 각자의 고민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을 선택하였다. 이들 주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두 모여 이야기하는 작은마을in수다 ‘고민있수다’의 의제가 되었다.

2018년 종암동새날도서관의 마을in수다는 ‘고민있수다’의 실천 대안을 찾는 ‘실천있수다’로 확장되었다. 동행원탁회의@종암동 구성원 일부가 실천그룹이 되어 각 의제에 대한 실천기획회의를 진행했다. <수다X수다>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실천 방안들을 직접 실행하고 시도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보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석치기도 하고, 생활예술전시도 함께 보고요. 허브 키우는 것도 배우다니. 동네에서 문화생활 즐기기가 쉽지 않은 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작은마을in수다 ‘고민있수다’



<수다X수다> 프로젝트 진행 모습

“새날도서관은 저희들에게 물꼬를 대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동네의 문화소식이나 공간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종암동에 서울에 술치유허브가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어요.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감사하고요.”

<수다X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게 된 삶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출처 : 2018 마을in수다 자료집, 43쪽]

2019년 동행원탁회의@종암동은 ‘동네꿀단지’로 네트워크명을 변경하고 운영하였다, ‘동네꿀단지’를 중심으로 ‘고민있수다’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종암동새날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세대 소통의 문화’를 의제로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소외 현상을 세대 소통의 관점에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마을in수다를 진행했다. 또한 도서관·주민자치회·학교가 함께 청소년·어르신 1:1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했던 어르신들 대다수는 “기본적인 핸드폰 사용법(문자, 카톡 등)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같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앞으로 이런 교육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청소년 참여자 역시 “어르신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르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북구 내에 있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 마을in수다 컬렉션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in수다 의제 사전 특강으로



2019 종암동새날도서관 마을in수다 진행 모습

<인공지능과 공존의 조건>을 운영 후에는 <디지털 문맹 탈출하기>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종암동주민자치회 연계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확장을 위한 실천그룹 조직 및 O.T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디지털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마을in수다를 통하여 도서관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서로 만나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서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마을에서 관계 맺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간 도서관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의문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변화가 생겼으며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며 변화된 삶의 모습을 공유했다.

도서관별 마을in수다 운영 사례 3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쓰레기 문제 해결 #쓰담쓰담 #마을학교 #청소년공간마련

2017년 석관동미리내도서관은 석이네(석관동 이모저모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석이네는 ‘석관동을 기반으로 한 민간단체, 유관기관, 주민이 모여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한 달에 한번 도서관에 모여 서로의 현안을 고민하고 마을의제를 논의·해결해가는 민·관·학 네트워크’이다.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마을in수다는 석이네를 중심으로 모인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마을 현안을 공유하고 그 중 투표를 거쳐 ‘쓰레기 문제’, ‘마을학교+주민거점공간’ 두 의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의제 선정 후 마을in수다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고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탐방과 지역워크숍’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해 나갔다.

1차 토론 워크숍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서는 쓰레기 관련 문제점을 찾아보고 각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조별 토론을 통해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석이네 (석관동 이모저모 네트워크) 운영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있는 지역민이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란 인식이며 실천되지 않는 방안들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하며 쓰레기 배출 문제가 있는 장소에 안내문 판넬 제작 게시, 학교를 통한 에코마일리지 이용 등의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출처 :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55쪽]

2차 환경워크숍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를 진행했다. 마지막 3회차 실전탐방워크숍으로 <나는야 우리마을 쓰레기 탐험대>를 모집하여 석관동 골목 구석을 누비며 현장의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다.



2차 환경워크숍



3차 실전탐방워크숍

‘우리 마을 쓰레기 고민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요’란 주제로 진행된 마을in수다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 자원 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의 쓰레기 문제 사례와 마을 쓰레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독산4동 마을기획 사례를 공유하며 마무리했다.

“주민주도냐, 행정주도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먼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뭔가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 목표를 향해가고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 그게 확산이 되요.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이 바뀌게 된다고 봅니다.**”

[출처 :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58쪽]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마을in수다 진행 모습



2017년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마을in수다에서 논의한 ‘쓰레기 문제’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쓰담쓰담>이라는 자발적 실천그룹을 만들었다. 현재는 독립된 주민자치모임으로서 여전히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은 ‘우리가 교육의 주제가 되는 석관동 마을학교’를 중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석이네’ 참여자들은 전국의 마을학교 사례를 공부하고, 현장 탐방을 기획했다.



석관동 마을학교에 대한 주민 의견 공유



석관동미래내도서관 2019 마을in수다 진행 모습

마을in수다에서는 석관동 마을학교의 방향과 실현방법에 논의했다. ‘물적, 인적, 공간 등 자원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개인마다의 다양한 인식과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석관동 마을학교 주민실천모임은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9년 석관동미래내도서관 마을in수다는 <청소년 공간이 필요해요. 왜?>였다. 이 의제는 석관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청소년공간만들기모임’인 ‘청공만모’도 함께 참여했다. ‘청공만모’는 석관동미래내도서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한천 레인저스, 또래끼리, 마을활동가 등 민관협력단체로 이루어졌다.

이후 끊임없는 공론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 ‘석관동 청소년 공간’은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에 선정되었다.

도서관별 마을in수다 운영 사례 4

정릉도서관

#마을플랫폼 #정릉동행즈 #일과 삶



웰컴 동행즈 홍보포스터

2017년 정릉도서관은 정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활동가, 단체들을 기반으로 ‘정릉동행원탁’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사랑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목표에 공감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정릉동행즈’를 모집했다.

정릉도서관은 <웰컴동행즈>를 기획하여 ‘정릉동행즈’ 참여자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소개하고 ‘마을과 주민, 단체, 기관, 현안 및 정보 등을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마을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공유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살고 싶은 정릉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정릉동행즈’의 운영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017년 마을in수다 의제는 ‘정릉동행원탁’ 회의를 기반으로 <액션라이브러리>로 정해졌다. ‘도서관과 함께 변해가고 있는 삶 마을과 도서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마을in수다 <액션라이브러리> 참여자들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주민의 공간으로서 도서관 책을 중심으로 한 삶의 공간’에 대한 앞으로의 도서관의 역할과 변화를 기대하며 마을in수다를 마무리 했다.

[출처 :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73-74쪽]

2018년 정릉도서관은 정릉도서관마을네트워크(정도네)에서 논의된 마을 사람들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들을 토대로 마을in수다의 의제를 발굴했다. 정릉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마을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릉의 지역적 특징에 기반하여 <이런 동네 처음이지?; 마을에 대한, 마을을 위한, 같기도 다르기도 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다>란 주제로 마을in수다를 진행했다.



2018 마을in수다 주제 컬렉션

마을in수다 참여자들은 마을활동에 대한 동력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 도서관과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가야해요. 일하다가 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덩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이웃과 관계를 맺고 관계망 속에서 뭔가를 같이 모색하고 그런 경험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배우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마을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시도하든 사서들이 지원하는 자료를 찾고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2018 마을in수다 자료집, 71쪽]

2019년 정릉도서관은 정릉도서관마을네트워크(정도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지역의제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정릉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란 게시판을 만들었다. 도서관 자료실과 온라인 설문 독서회와 지역축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제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의제 발굴 과정을 거쳐 2019년의 마을in수다의 의제는 ‘일과 삶’으로 결정되었다.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프로그램기획론 참여 학생들과 공동 기획으로 마을in수다 연계 컬렉션전시 및 리플릿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의제 발굴에 참여하지 않은 주



도서관 내 주민 의견 참여 게시판



지역축제 참여 의제 게시판



주제 컬렉션 전시



2019 마을in수다 연계 리플릿

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을in수다의 주제를 알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의 정릉도서관 마을in수다는 <일과 삶의 균형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각각 20대, 30대, 40대의 다양한 연령층의 발제자와 패널을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각자 그동안의 삶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찾은 해결책들을 공유했다.

마을in수다 이후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냐 묻는다면 : 브로드컬리 편집장과의 만남>이란 특별 후속 강좌를 마련했다. 독립잡지 기획팀 브로드컬리가 만난 자영업 공간 운영자들의 이야기와 독립 출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하고 싶은 일과 독립출판이라는 주제는 평소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정릉도서관 2019 마을in수다 진행 모습



정릉도서관 특별 강좌 진행 모습

도서관별 마을in수다
운영 사례 5

청수도서관

#마을이 키우는 아이 #반려견

청수도서관은 도서관기반네트워크 ‘솔벗’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기적인 모임을 거쳐 ‘가족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2017년 청수도서관의 마을in수다 <마을이 키우는 아이: 우리아이는 마을에서 잘 자라고 있나요?>를 진행했다.



청수도서관 2017 마을in수다 진행모습

“저 혼자만의 고민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또래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 또한 하교 후에 집에 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거야’라는 어른들의 믿음으로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봐주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87쪽]

마을in수다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마을과 학교, 가정 모두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마을을 만

들어 가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 과제로 남았다.

2018년 청수도서관은 ‘반려견’을 주제로 한 마을in수다를 진행했다. 청수도서관은 오래된 가옥을 개조해 만든 도서관으로 도서관 앞마당에서 실제로 고양이와 강아지가 뛰어 놀기도 한다.

<마을in수다: 정릉강아지 상륙작전> 사전 활동으로 도서관 자료실에 ‘우리 동네 반려견을 소개합니다’ 전시 코너를 만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려견에 대한 사전 질문과 생각들을 나누는 ‘사전 질문 게시판’을 도서관내 설치했다. 사전 질문에는 ‘강아지 산책 시 유의사항’과 길고양이급식소와 같은 타구의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쌓여 그 자체로 훌륭한 정보서비스게시판이 되었다.



‘우리 동네 반려견을 소개합니다’ 전시 코너



사전 질문 게시판

<마을in수다: 정릉강아지 상륙작전>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주민 스스로 ‘펫티켓’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함께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는 강아지와 슬기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며 애견인도 비애견인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in수다를 진행했다.

도서관별 마을in수다
운영 사례 6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장위동에 산다는 것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은 2019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 커뮤니티 및 주민커뮤니티를 발굴하여 장위도서관마을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동네 소식과 현안을 나누고 마을in수다를 함께 계획했다.

2019년 첫 마을in수다로 ‘생활공간 장위동’을 중심으로 한 <장위동에 산다는 것>을 진행했다. 전문패널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N개의 방법>을 시작으로 4명의 주민 패널의 마을 활동 공유가 이어졌다. 패널들의 발표 후 참여자들의 ‘내가 바라는 우리 마을의 작은 변화와 마을에서 겪은 좋은 경험,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분(사람)’에 대한 자유토크가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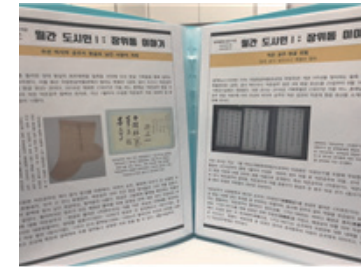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길이 계속 바뀌고 있고, 골목지도 등 골목이나 문화공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우리 마을을 둘러 볼 수 기회를 가지고 싶다. 주민들이 재개발 등 갈등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쓰레기 등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인식의 변화와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하는 마을 장위동을 기록하고 싶다.” 등의 바람을 이야기하며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장위동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도서관이란 공간이 생겨서 아이들과 새책을 마음껏 읽게 된 점 **도서관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좀 더 나은 공간으로 우리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N개의 방법>
발표 모습



장위행복누림도서관 2019 마을in수다 운영모습



월간 도시인: 장위동 이야기 참고자료

<장위동에 산다는 것>을 진행하는 동안 ‘마을과 장위동’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핸드 아웃으로 제공했다. 장위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마을in수다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과반 이상이 ‘**도서관의 공론장 경험이 개인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 마을in수다의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개개인이 생각들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이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함과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참고] 연도별 진행기관 및 운영주제

	진행 기관	주제
2016 *구립도서관 8개관, 협력기관 2개관		
1	종암동새날도서관	갈등
2	청수도서관	도심 속 생태
3	정릉도서관	혁신교육
4	달빛마루도서관	나의 나이들에 대하여
5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배려
6	해오름도서관	생활 속 미세먼지
7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이런 꿈 껴도 되나요?
8	작은도서관네트워크	교육다이어트
9	아리랑도서관	불안
10	성북정보도서관	책 읽기, 빛이 중헌디?
2017		
1	성북정보도서관	마을, 어디까지 가봤니? 마을에 대한 오만가지 생각
2	종암동새날도서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나는 공간을 위하여
3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우리 마을 쓰레기 고민 있습니까?
4	정릉도서관	액션라이브러리
5	청수도서관	마음이 키우는 아이: 우리 아이는 마을에서 잘 자라고 있나요
2018		
1	성북정보도서관	슬기로운 노년 생활
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석관동 마을학교' 함께 만들어 볼까요?
3	청수도서관	정릉 강아지 상륙작전
4	정릉도서관	어서와, 이런 동네 처음이지?
5	아리랑도서관	우리집, 괜찮은 걸까?
6	종암동새날도서관	내 삶에 변화를 준 모임: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하여
2019		
1	성북정보도서관	우리, 도시재생하면 잘 살 수 있나요?
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청소년 공간이 필요해요. 왜?
3	장위행복누리도서관	[]로 장위동에 산다는 것
4	정릉도서관	일과 삶의 균형은 가능한가?
5	종암동새날도서관	디지털 시대에서 함께 살아남기
2020(예정)		
0	더 마을in수다	"변화하는 마을과 도서관"
1	성북정보도서관	당신에게 이웃은 필요합니까? 이웃에게 당신은 필요합니까?
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비대면 상황에서의 관계와 마을
3	종암동새날도서관	"재활용" 코로나19 이후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할까?
4	정릉도서관	위기 속 기회, 랜선 커뮤니티
5	장위행복누리도서관	제로 웨이스트

2016-2020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 포스터 모음



4부를 마치며

‘도서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4부에서는 도서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사례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을in수다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을in수다의 발전 단계를 생성기(2016~2017)-진행기(2018~2019)-변화기(2020~)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의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적 고민들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생성기와 진행기에 있었던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의 진행 사례들을 담았다.

마을in수다의 시작은 성북구 민선 6기의 주민자치역량 ‘생활, 골목, 마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핵심의제에 따라 시민의 힘을 키우는 공론장을 ‘도서관’에서 시도해 보고자 함이었다. 초기 마을in[人]수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일상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론장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많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 현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졌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성북구립도서관은 더 확장된 공론장 형태의 ‘마을in수다’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알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2017년 1월부터 180일 동안 성북구립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 개인, 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마을 정보와 그들이 가진 고민을 수집했다. 인터뷰에서 많은 단체들이 마을현안에 대해 알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공공도서관이 중심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응답했다. 2017년 마을in수다는 일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고민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사회 흐름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떠올리는 문제와 질문을 찾아 토론하고 변화와 실천방법을 찾는 과정이었다.

진행기(2018~2019)는 지난 2년간의 마을in수다를 바탕으로 정량적 지표에 대한 한계와 지속가능성

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졌다. 성북구는 마을in수다 운영을 통해 의제와 관련한 해결책과 실천 방안을 실행하는 ‘실천그룹 조직화’를 새롭게 고민하였다. 생성기와 진행기의 반복되는 사서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의 ‘마을in수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람이 ‘동력’이 되는 한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은 2020년 마을in수다의 변화기를 맞아 내부의 적절한 자원 분배를 통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계속 성장하는 시민에 비해 사서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간담회를 바탕으로 ‘도서관 속 메타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사업담당자 간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사업의 일값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업무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부담감을 줄여나가고자 함이었다. 또한 마을in수다에 대한 사업지표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공론장의 특성에 따라 서술형지표를 추가하였다. 특히 ‘정보서비스’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서관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성북구립도서관 마을in수다는 각 도서관에서 진행된 마수다를 하나로 연결하여 확장된 ‘도서관의 공론장’을 만드는 ‘더 마을in수다’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변화하는 도서관과 마을공론장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마을in수다의 더 나은 방향을 만드는 중이다.



가능성을 찾아
치열한 삶의 변화 한가운데에서
묻고 대화하고 고민했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증명하는
이 “과정”의 기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갈지
질문에 꼬리를 물고
그 길을 모색하는 작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제언

삶의 변화가 던져진 지금,
우리는 도서관으로 향해 간다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이 질문을 곁에 두고 시작한 연구가 막바지에 왔다.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오히려 자극을 받고 활기를 찾아갔다. 코로나19가 기존의 ‘삶의 질’ 근간을 마구 흔들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가져온 전대미문의 재난은 지금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끼치며 함께 하고 있다. 한 의학 전문가는 코로나19를 장대한 ‘그랑 오페라’에 비유하며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가장 지루하다는 3막이 시작됐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4막과 5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시기를 견디기 위한 노력이 일상에서 조금씩 시도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지고 세대를 막론해 겪는 ‘코로나 우울’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했지만 ‘극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고난기를 나누고 지자체와 정부는 관련한 대책과 프

로그를 내놓았다. 사회적 차원의 ‘건강한 사회 만들기’가 절실했다. 공공성을 담보한 장소들도 더 이상 빗장을 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증폭된 문제를 여실히 체감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 각계의 다양한 담론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대열에 시민들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공공 도서관’도 합류하기 시작했다.

3월부터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목소리는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과 매뉴얼을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건 도서관 각기 현장의 몫이었다. 말 그대로 도서관은 혼란과 변화의 물살을 그대로 맞이했다. 외관상 도서관은 굳게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서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뒤바뀐 환경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느라 급급했다. 해야 할 몫과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실패와 착오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도 도서관이 감내해야 할 과제였다. 극단적으로는 도서관 존립의 문제로 치닫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목소리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했다.

삶의 질 연구, 삶 속으로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부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시작하고자 ‘삶의 질’ 개념을 찾아 살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말하기 전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며 객관적인 추세와 동향을 읽었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국민 삶의 질 2019>의 주관적 웰빙 영역인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세 가지 지표는 전년 대비 모두 나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삶의 질과 관련된 도서관계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도서관이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방식으

로 기여하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측정과 평가를 거쳐 가시적으로 그 의미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증명 방식과 싸워야만 할 때 도서관과 ‘삶의 질’ 연구 방식은 다양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부는 사람들과 선불리 만나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 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내부에서 고민한 이야기 거리를 길어 올려 논의가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했고 도서관을 오거나 혹은 잘 오지 않는 열다섯 명의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답변을 보냈다. 더 파고들 수 있는 화두가 있다면 원고는 몇 차례 다시 오갔다. 글 속에서 의미 있는 질문들이 생겨났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에 무릎을 탁 쳤다. 4개월 간 즐거운 고민은 그렇게 시작됐다.

확진자 수가 줄기만을 기다려 방역수칙을 지켜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들을 모아 기록한다면, 도서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의 작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힘들고 막막한 일상에서도 사람들은 연대를 원했고 공동체의 의미가 무색해진 때에도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를 꿈꿨다. 비대면 시대에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 맺기는 생명과 환경의 논하는 ‘공생’과 ‘공존’의 성찰로 이어졌다.

한편 지역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를 둘러싼 공개 석상 포럼은 다양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질문을 던지는 유의미한 장이었다. 국제적으론 한국에서 보여준 믿음과 단결의 공동의 선이 긍정적인 파장을 올렸다. 국내에선 코로나19로 증폭된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 감정을 초월한 시대의 징후로 읽혀졌다. 사회적인 책무와 더불어 개인의 경험으로 체득된 방안들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만남’으로 시작해 ‘이야기’의 물꼬를 열게 하는 것이다. 번뜩이는 많은 아이디어 중에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난감함을 공유하며 질문을 던져보자는 제안도 있었다.

전환의 시대, 사서의 역량은 더 드러나고 발휘되어야 한다

비대면 시대, 그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체험 중인 건 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관종별 도서관들이 난감함을 공유하며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었다. 목소리는 차차 다양해졌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안건은 ‘전자 자료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의 주제가 되었다. 또한 도서관이 변모해야 할 공간의 문제, 대응 전략을 위한 혁신적인 구조와 제도의 재정비,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의 형태와 지속성 역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무엇보다 채 놓치거나 극단적으로 무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논의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은 보다 넓은 층위의 삶의 리터러시를 다뤄야 했다. 불확실한 시대를 기민하게 읽는 사서의 역량이 중요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3부는 서울과 경기 등 도서관에서 일하는 중간관리자 및 사서들과 두 차례 온라인으로 만나 진행했다. 도서관의 정책적 문제와 변화를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였기에 더 진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내부에서 키워왔던 문제들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외부의 잦은 환경 변화가 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려면 ‘대응’을 넘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한목소리였다. 비록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지만 이들은 사서였기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었다. 이 온라인 대담은 도서관이 지니는 문제들을 날것 그대로 불러와 공유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4부는 사람과 마을을 향한 관계 맺기의 일환인 성북구립도서관의 ‘마을in수다’ 활동 사례를 통해 삶의 변화라는 가능성을 엿봤다. 성북구는 지역의 사람과 단체 및 기관들을 연결하고 마을의 현안을 이끌어와 유의미한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마을민주

주의를 지향해왔다. 2016년부터 시작된 마을in수다는 도서관과 마을이 함께 꿈꿔온 노력과 긴밀한 협업으로 마을의 네트워크는 해가 갈수록 성장했지만 내부 동력은 탄탄하지 못했다. 지금 바로 가속 페달을 멈추고 내외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만남과 이야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도서관네트워크라는 성과를 묵묵히 만들어온 사람들 곁에서 함께 에너지를 쏟고 힘을 보태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어려운 이야기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내부에서 들려준 사업 성과 이면에 숨은 문제점들은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성과 뒤에 가려진 피폐함은 때론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몫이었기에 더욱 상처가 컸다. 그럼에도 마을의 이야기가 결국 ‘사람’의 힘을 얻고 나아가려면 일부의 이야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희망적인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북적이게 만드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문을 닫았고, 동시에 이야기할 ‘장’은 사라졌다. 도서관은 어느 누구에겐 일상이었으며 또 어느 누구에겐 삶의 큰 몫이었다. 심리적인 안식처이자 물리적인 쉼터인 도서관은 이들이 건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했다. 산재한 문제들도 더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다. 문턱을 없애려고 했던 노력들이 무색하게 도서관은 또 다른 문턱들과 마주한 셈이다. 진통의 시간은 쉬이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걸 확인한 동시에 서로의 절실함이 이야기를 통해 만나는 순간이었다.

도서관의 공간만큼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는 사람 즉 사서였다. 도서관의 ‘사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진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전달하는 정보 전문가로 소환되었다. 어느 때보다 사서의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시기다. 도서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한 인터뷰이는 초창기 진원지를 알 수 없이 폭발적으로 난무했던 인포데믹에 맞서 객관적인 정보를 거르는 능력이 생겼다고도 했다. 사서의 증명 방식이 하나 둘 생기는 만큼 사서의 정체성도 그 힘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언제나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곳, 곤궁한 문제들을 묻고 나눌 수 있는 곳, 마을과 지역으로 이어지게 하는 곳, 그리하여 결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새삼 환기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서를 향해 주민들이 보내온 응원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전하고 싶다. 도서관을 향한 절실함이 곧 도서관의 공공성을 공고히 하는 원료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의 존재 그 자체로 이어지는 까닭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계속 던져져야 한다

의문으로 가득했던 질문들은 결국 나뉘야 해소된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잔뜩 꼬인 실타래가 어느덧 느슨해졌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 오펜라’는 일상의 리듬을 타고 지금도 사람들의 곁에서 흐른다. 그렇게 삶은 계속된다. 예측할 수 없는 파고를 겪으며 코로나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유다. 불시에 찾아드는 혼돈을 또 다른 익숙함으로 껴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를 꿈꾸는 도서관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이 될까. 사람들의 노력과 숨은 고투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스스로 지치지 않기 위해, 도서관이 더 나은 증명들을 만들어 도서관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나에게 익숙한 질문이 남에게 낯선 질문으로 던져지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도서관을 향한 이 색다른 모험은 지금, 시작되었다.

함께 해 주신 분들

강 영 아
김 문 희
김 미 경
김 은 숙
김 지 혜
김 현 경
박 현 경
박 효 주
배 민 주
서 유 경
송 나
송 인 노
유 상 진
유 선 애
육 지 혜
윤 정 환
이 수 희
이 혜 리
이 진 우
정 다 애
정 다 운
정 미 립

참고 자료

논문

김상균, 권태환, 이문웅, 이정전, 김태성, 조홍식, 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회 77(2).

우성대, 2014, 행복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연구 : 웰빙과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3.

이현국, 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회 48(2).

김병섭, 최성주, 최은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연구, 한국행정학회 49(4).

노영희, 박양하, 2017,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노영희, 2019, 도서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언론기사(신문, 방송)

0328 경향신문 <“코로나 우울증, 사회안전망 확충이 해답”>

0401 퓨처타임즈 <코로나19가 바꾸는 16가지 세상 변화>

0405 한국경제 <‘코로나 이후…개인 삶, 기업 경영, 정부 역할 다 바뀐다’>

0406 광주일보 <코로나19와 ‘재난인문학’> (강희숙 조선대 국문과 교수)

0408 동아일보 <“국단적 선택은 개인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 함께 해결해야”>

0413 중앙일보 <“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0414 한국일보 <성인남녀 절반 이상 “코로나 블루 경험”>

0414 한겨레 <떨어져 교류하기… ‘문명의 뉴노멀’이 움튼다>

0414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질병의 두려움이 인간 심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

0417 스마트시티투데이 <도서관, 코로나 19로 대공황 이상 많은 수요 직면>

0420 국민일보 <문 대통령 ‘공동체의 중심은 ‘아픈 곳’">

0421 조선일보 <거대정부의 진격, 약수의 종말...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

0422 가톨릭평화방송 [바티칸은 지금] <교황, ‘공동체 없는 친밀함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0423 한국무역신문 <코로나 19가 가져올 7대 분야, 30개 트렌드>

0423 중앙일보 <코로나로 위기 몰린 사회적 약자, 외면하면 공동체 무너져>

0424 경향신문 [코로나19와 삶]김승섭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희생되는지 물어야”

0424 한국일보 [거대한 변화, 코로나 총선 이후] <“공동체, 국가다움, 안전이 시대정신 화두”>

0424 SBS뉴스 <일상 바꿔놓은 코로나… 당신은 ‘약수’하시겠습니까?>

0425 SBS <공동체 의식 키운 마스크… “당신과 나를 지키는 배려”>

0427 경향신문 <“코로나 시대의 4계급… 당신은 어디에 있나”>

0503 한겨레 <‘화장지 위에서 뛰는 쥐, 아이폰드 속 수산화…예술가들의 코로나 극복법’>

0504 조선일보 <“코로나 시대, 정부가 뭘해도 된다는 논리는 위험”>

0504 문화일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0505 독서신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화두… ‘건강한 거리두기’>

0506 나우앤서베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나빠져 53%>

0506 국민일보 <‘코로나, 책임기에 눈뜨다… 드라이브스루·전자도서관 열풍’>

0511 프레시안 <코로나 이후,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0513 한겨레 <트위터 “코로나 끝나도 직원 원하면 재택근무 허용”>

0524 KBS 뉴스 <‘코로나 전쟁터’에 왜 예술이 필요합니까?>

0531 SBS 뉴스 <재택근무로 드러난 ‘노동 생산성’… 위기감도 가중>

0602 시사N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0604 서울경제 '美식학 "K방역 훌륭하지만… 사회불평등 완화 과제에 직면”

0606 여성신문 <시민사회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 아닌 불확실성 문제다”>

0608 한겨레 <마이클 샌델 “코로나 대응하는 한국 공동체 의식에 주목”>

0609 중앙일보 <당신이 마스크를 써야하는 이유…佛식학 아탈리 “이타주의, 코로나 생존에 유리”>

0621 동아일보 <코로나,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52% “소득 감소”>

0622 한겨레 <코로나19 ‘실직 재난’ 저임노동자에 10배 더 가혹했다>

0622 시사위크 <‘포스트코로나’ 속도 내는 정부, 성공 관건은 ‘디지털 포용’>

0623 매일노동뉴스 <‘통계로 입증된 코로나19 비정규직 고용충격’>

0624 한겨레 <‘코로나 삶’ 암울하지만 공적기구 신뢰 커졌다>

0626 뉴스앤조이 <코로나 시대, 여성들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인가>

0629 경향신문 <“엄마, 우울해요”…아이들에게 번지는 ‘코로나 블루’>

0703 한겨레 <‘한국사회, 각자도생의 욕망과 공동체적 연대의 갈림길에 서다’>

0704 경향신문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약용한 차별과 혐오 막는다’>

칼럼, 사설, 오피니언, 기고, 연재 등

0323 [이문재의 시의 마음] ‘방역 주체’에서 ‘전환 주체’로, 이문재(시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경향신문

0329 [2030 리스펙트] 바이러스는 공평하다, 이은지(문학평론가), 한겨레

0408 [세상읽기]<코로나 이후, 연결의 빛깔>, 조문영(연세대 문학인류학과 교수), 한겨레

0416 [시민편집인의 눈] 인권을 위한 공익, 공익을 위한 인권,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한겨레

0422 [기고] ‘초월적 위험사회’가 도래하다, 김중백(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0425 [삶과 문화 토크보기]<‘우리’라는 타인들의 공동체>, 윤대녕(소설가), 매일경제

0504 [칼럼] 방역과 일상의 공존...생활방역 책임의 사회화 없인 불가능, 라포르시안

0507~0625 [7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 장하준 외, 경향신문

0511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강선우, 이투데이

0512 [이희옥 칼럼] 팬데믹 시대, 리더의 조건, 서울경제

0512 [정동칼럼] 코로나19 사태와 지식공유 운동, 천정환, 경향신문

0518 [조한혜정의 마을에서] 전환시대 전문가의 자격, 경향신문

0529 [삶의 창] 동네가 미래다, 전범선, 한겨레

0605 [편집국에서] 그래도 도서관은 열어야 한다, 경향신문

0611 [기고] 강경화, 포스트 코로나, 마음속 ‘신뢰의 방벽’을, 한겨레

0629 [미래포럼] 코로나19가 일깨운 포용적 인간사회와 지구환경, 임승빈, 환경과조경

0711 [기고] 코로나19시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경향신문

0804 [기자칼럼] 도서관은 힘이 세다, 경향신문

0917 [시민편집인의 눈] 코로나 시대, ‘공공의 책임’을 묻는다, 홍성수, 한겨레

1029 [마음 읽기] 소셜미디어와 조롱의 시대, 장강명, 중앙일보

라디오 및 대담

[라디오_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0407 최재천 “바이러스 사태, 이대로면 3년에 한번꼴”

0410 장하준 “1929년 같은 대공황..돈 쏟아 해도 막아야”

0414 최재봉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 포노사피엔스 온다”

0421 홍기빈 “참았던 소비욕망 분출하자? 그 시대는 끝났다”

0424 김누리 “세계의 미국화, 이제는 무너질 것”

0430 김경일 “코로나19 이후 행복의 척도, 이렇게 바뀔다”

0826 이왕준 “내후년까지는 마스크 못 벗는다”

[대담]

0429 [최재천·최진석 대담] 코로나19와 한국의 미래, 신동아

중계/온라인(유튜브)자료

0326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총 유튜브

0331 코로나19와 지역문화생태계 (성북공유원탁회의 3월 좌담회), 칼라티비 유튜브

05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튜브

0514 코로나19와 환경위기·진단과 문제제기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0515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기 소르망, (제1편 문화와사회), 외교부 유튜브

0608 ‘코로나 이후의 세계: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마이클 샌델, (제2편 공동체와 시민사회), 외교부 유튜브

0520 코로나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포럼, 카오스 사이언스 유튜브

0603 시민주도 재난극복의 중요성과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등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서울시 유튜브

0612 2025 서울예술인플랜 수립 1차 토론회_‘전환사회의 예술인을 위한 상상력’,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0625-0723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 긴급온라인포럼 (패널: 김웅섭, 유현준 등), 국제구호개발NGO월드휴먼브리지 유튜브

0625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한국의 삶의 질과 청년층의 삶의 질’, 통계청(통계개발원 포럼 유튜브)

0626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1회 (슬라보예 지젝, 이택광 교수), 플라톤아카데미TV, SBS CNBC제작

0626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2회 (김누리 교수), 플라톤아카데미TV

0702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포럼 2020’, 광주과학기술원(GIST),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포럼 2020 유튜브

0702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3회 (제인 구달 박사,최재천 교수), 플라톤아카데미TV, SBS CNBC제작

0717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 4회 (조한혜정 교수), 플라톤아카데미TV, SBS CNBC제작

0730 코로나 시대 ‘성북 지역축제와 지역문화생태계의 내일을 위한 긴급토론회’, 공유성북원탁회의 유튜브

0813 위기시대, 사회적 돌봄과 공간 변화, 조한혜정, 유현준 (서울디자인재단 DDP 디자인뮤지엄), DDP SEOUL 유튜브

0824-0907 비대면 시대, 도서관 서비스를 말하다, 2020 경기도도서관 온라인포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0904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과 도서관의 도전,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책 포럼,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0919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방안>_수성구립 용학도서관×세계트리플헬릭스미래전략학회(WATEF), 용학도서관 유튜브

1005 ‘대체불가능한 사서의 비밀’ 2020서울지식이음포럼, 이벤터스 웨비나 온라인

1028 제6차 사서릴레이 대토론회_ ‘재단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다’, 2020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뉴 노멀 시대, 변화를 준비하는 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

1029 ‘새로운 일상, 제3의 장소의 재발견’, 2020 마을 그리고 도서관, 교하도서관 열림포럼, 비딩스테이 온라인

1030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 SDF 2020 온라인 화상포럼

홈페이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국가지표체계(국민삶의질지표) <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

성북구청 <http://www.sb.go.kr/>

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 <https://sbddata.sb.go.kr/>

성북구립도서관 <https://www.sblib.seoul.kr/library/index.do>

도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_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김성우, 엄기호, 따비,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 강윤주·박승현·유창복 외 지음, 책숲, 2020.

『각자도생 사회』, 전영수, 블랙피쉬, 2020.

『가짜뉴스의 고고학』, 최은창, 동아시아, 2020.

『뉴욕도서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뉴욕공공도서관, 배리 블리트 그림, 이승민 역, 정은문고, 2020.

『펜데믹 패닉』, 슬라보예 지젝,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0.

『불평등 트라우마 -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심리적 영향력과 그 이유』, 리처드 윌킨슨, 케이트 피켓, 이은경 역, 생각이음, 2019.

『라이프 트렌드 2020 : 느슨한 연대 Weak Ties』, 김웅섭, 부키, 2019.

『가짜 뉴스의 시대』, 케일린 오코너, 제임스 오언 웨더럴, 박경선 역, 반니, 2019.

『우리 몸이 세계라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8.

『전문가와 강자들』_나도 너만큼 알아, 톰 니콜스, 정혜윤 역, 오르마, 2017.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동아시아, 2017.

『약한 연결』, 아즈마 히로키, 안천 역, 2016.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최민우 역, 문학동네, 2014.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 에드 디 앤절로, 차미경·송경진 역, 일월서각, 2011.

그 외 자료

국민 삶의 질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02.

정책과 도서관(VOL.55), 국립세종도서관, 2020.06.

도서관문화 2020 3+4 (제61권 제2호 통권 제519호),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2020.04.27.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동향,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01호), 서울디지털재단, 2020.5.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 2020-02호), 서울디지털재단, 2020.6.

도서관의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신남희, 기획회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통권 515호), 2020.07.05.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2019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성북구청, 2019.

한국인의 행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19.

2018 마을in수다 자료집, 성북구청, 2019.

2017 마을in수다 자료집, 성북구청, 2018.

2018 광장4색(愚索) 콜로키움 ‘마을과 함께 광장에 서다’, 성북문화재단 아리랑도서관, 2018.

2017 공공도서관동행원탁 자료집, 성북문화재단, 2017.

2017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성북구청, 2017.

‘공공기관, 이제 사회적 책임에 나설 때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7.09.27.

도서관담론 : 도서관의 미래를 말하다, 김경집 외 6인, 경기도도서관총서20,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7.

찾아보기

A-Z

CoP, 학습공동체 43, 68

ㄱ

각자도생 31, 33, 34, 73, 165

공간 3, 13, 14, 27, 28, 46, 56, 59, 62, 63, 66, 68, 70, 71, 75, 79, 85, 8, 84, 85, 89, 91, 94, 97, 101, 102, 104, 105, 108, 109, 110, 118, 122, 123, 124, 132, 134, 139, 140, 145, 147, 150, 151, 153, 154, 156, 158, 165, 166, 167

공공도서관 12, 13, 14, 15, 57, 58, 60, 75, 106, 110, 119, 121, 124, 125, 127, 128, 140, 160, 164

공공서비스 11, 12, 120

공공성 68, 95, 113, 119, 125, 164, 168

공동체 13, 14, 21, 24, 32, 34, 35, 40, 42, 46, 64, 65, 68, 73, 74, 77, 91, 95, 96, 121, 123, 125, 160, 165

공론장 66, 67, 68, 76, 105, 107, 113, 118, 121, 122, 124, 127, 128, 129, 132, 135, 136, 137, 138, 140, 143, 157, 160, 161

공존 24, 40, 41, 50, 74, 79, 120, 146, 155, 165

관계 맺기 35, 37, 131, 146, 165, 166

ㄴ

네트워크 5, 17, 60, 81, 107, 122,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7, 139, 140, 142, 143, 145, 146, 147, 152, 154, 156, 158, 167

뉴노멀 25, 94, 95, 103, 105

ㄷ

더 마을in수다 136, 138, 158, 161

도서관 공론장 118

도서관기반네트워크 127, 128, 128, 129, 133, 154

독립출판 153

디지털교육 146

디지털 리터러시 73, 103, 111, 113

ㄹ

마수다 122,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5, 136, 137, 138, 161

마을 3, 5, 55, 56, 60, 66, 75, 92, 98, 103, 104, 105, 107, 118~161

마을공론장 105, 107, 127, 129, 132, 136, 138, 143, 161

마을네트워크 5, 130, 134, 139, 152, 156,

마을민주주의 118, 119, 120, 121

마을인터뷰 126

마을플랫폼 139, 151

마을학교 139, 147, 149, 150,

마을in수다 136, 138, 139, 147, 149, 158, 161

민-관 거버넌스 120

민주주의 97, 104, 105, 118, 119, 120, 121

ㅁ

북큐레이션 58, 110, 126

비대면 시대 29, 36, 73, 80, 81, 82, 83, 86, 870 165, 166

ㅂ

사마담 122

사서 5, 47, 56, 58, 67, 69, 70, 71, 72, 75, 76, 80, 82, 84, 86, 87, 89, 91, 93, 97~110, 113, 114, 122, 125, 126, 127, 128, 129, 131, 132, 133, 136, 137, 138, 141, 152, 161, 164, 166, 167, 168

사서공론장 136

사업지표 130, 136, 137, 161

사회적 가치 119, 120

삶의 변화 4, 5, 16, 73, 91, 113, 114, 126, 127, 132, 138, 145, 162, 163, 166, 168

삶의 질 4, 11, 12, 13, 14, 15, 17, 19, 20, 21, 33, 88, 113, 114, 145, 163, 164, 165

서술형지표 136, 137, 161

석관동미리내도서관 139, 147, 149, 150, 158

성북구립도서관 57, 66, 100, 117, 121, 122, 124, 126, 128, 130, 132, 135, 136, 137, 138, 139, 159, 160, 161, 166

성북정보도서관 93, 139, 140, 142, 158

세대 15, 29, 30, 31, 40, 59, 63, 67, 73, 96, 106, 109, 123, 139, 143, 145, 163

세대 소통 139, 145

실천그룹 130, 161

ㅇ

아리랑도서관 134, 158

아리랑어린이도서관 134

예술가 60, 61, 62, 75, 128, 140, 141

의제 67, 76, 120, 122, 126, 127, 129, 130, 131, 133, 135, 136, 137, 142, 144, 145, 147, 149, 150, 151, 152, 153, 160, 166

일과 삶 17, 28, 139, 151, 152, 153, 158

일상성 72, 97, 100, 101, 119

ㅈ

장위동 139, 156, 157

장위행복누림도서관 139, 156, 157, 158

재난인문학 53

재택근무 25, 26, 28

정량지표 137

정릉도서관 125, 139, 151, 153

정보서비스 57, 129, 130, 136, 137, 141

종암동새날도서관 122, 123, 139, 143, 144, 145, 146, 158

지역사회 11, 24, 28, 32, 38, 44, 46, 52, 57, 58, 59, 60, 75, 76, 86, 92, 130

ㅊ

청수도서관 139, 154, 155, 158

ㅋ

커뮤니티 17, 38, 57, 58, 59, 63, 65, 66, 67, 72, 75, 76, 97, 98, 105, 106, 156, 158

컬렉션 122, 139, 154, 155, 158

코로나19 3, 4, 5, 16, 24, 25, 26, 27, 28, 30, 41, 42, 43, 443, 48, 49, 52, 53, 55, 57, 73, 75, 78, 85, 87, 117, 119, 121, 131, 135, 158, 163, 164, 165, 166

코로나 우울 63, 64, 65, 76, 93, 163

코로나 일상 103, 122, 136, 141, 142, 153

코로나 블루 63, 76

콘텐츠 66, 81, 137, 166

ㅎ

행복지수 17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내 삶의 도서관, '코로나 일상'을 통해 읽다

지은이	김주영, 조다희, 최찬란
진행	강윤경
교정교열	신정아, 김대선, 조수경, 강석주, 송은경, 김다솜, 정명길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23번길 68 TEL. 031-252-5237 FAX. 031-246-4021
제작	디자인탈
비매품	이 책의 판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총서의 원문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www.library.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93395-93-8 978-89-93395-06-8(세트)

경기도도서관총서

- 제1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 제2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포털
- 제3권 도서관, 기본을 고민하다
- 제4권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서비스
- 제5권 청소년,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 제6권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 제7권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도서관
- 제8권 SNS, 도서관에 날개를달다
- 제9권 도서관 첫 발걸음, 영·유아서비스
- 제10권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협력
- 제11권 도서관 동아리, 그 사이에 흐르는 이야기
- 제12권 도서관과 함께한 행복한 노년
- 제13권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디스플레이
- 제14권 도서관, 문화로 온기를 나누다
- 제15권 미국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 제16권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첫 걸음
- 제17권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활동
- 제18권 도서관, 기억하다 기록하다
- 제19권 도서관에서 보드게임을!
- 제20권 도서관 담론
- 제21권 북 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 제22권 도서관, 건축에 길을 묻다
- 제23권 브랜딩으로 성장하는 유기체, 도서관
- 제24권 파리 공공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공간
- 제25권 그림책 소물리에, 도서관 서비스를 디자인하다
- 제26권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경기도도서관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왜 끊임없이 그 가치와 의미를 증명해 내야 하는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책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버렸고, 도서관 또한 멈춤과 변화의 기로에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새롭게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꾸준한 양적 성장과 일상에 속해 있다는 보호막이 걷혀버린 지금,
 도서관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간 우리가 해왔던 활동들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그룹과의 심층 인터뷰는 도서관의 현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다시 묻는다. 우리 삶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지, 삶의 질과 도서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다시 묻기를 반복하며 이 책의 저자들은 집요하게 묻고 답을 구한다.

그리고 말한다.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도서관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을. 지식의 공유를 통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공론장을 통해,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흐름에서도 사람과 삶을 이어주는 리더러시를 통해...
 도서관과 사서들은 끊임없이 그 가치와 의미를 증명해낼 것임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이진우(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